이투데이

ECONOMY TODAY
2019년 9월 16일 월요일
etoday.co.kr

제2222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정의선의 '수소전기차' 기술자립 가속페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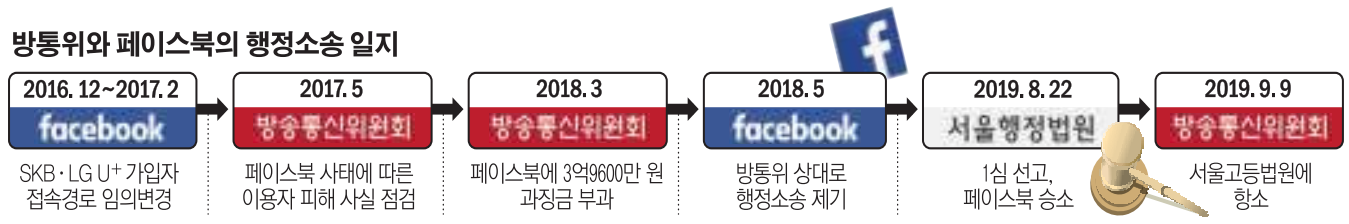
실물증권 '안녕'…오늘부터 전자증권시대 16

코스피(11일 (전주 대비)) 2049.20(+40.07P)
코스닥 630.37(−0.42P)
환율(달러당 원화) 1191.00(−5.9원)
금리(국고채 3년물) 1.258%(−0.007%P)

"IT공룡 '網 무임승차' 저지" 다시 칼 가는 방통위

스페셜e리포트

'접속경로 변경' 페북 승소로 CP '상호접속 폐지' 움직임
방통위, 패소 보름 만에 항소
접속지연 고의성 부각에 총력



페이스북과의 소송에서 패한 정부가 반격에 나선다. 특히 신임 방통위원장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반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패소한 후 보름 만이다. 특히 방통위는 항소와 동시에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회도 18일 CP(콘텐츠 제공 사업자)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방통위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은 취임 직후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고,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OTT와 SNS 등 새로운 미디어에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 법정 공방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방통위는 1심에서 패한 뒤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다. 1차 판결에서 페북이 승리하면서 구글, 유튜브, 네이버 같은 CP들이 힘을 모아 국내 인터넷 시장 제도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는 조직적 움직임을 펼치고 있어서다. 1차 재판은 접속 경로 임의 변경이 표면적 문제지만 트래픽 집중으로 네트워크 등에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경우 이를 통신사(ISP)가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향후 접속료 협상 영향은 물론 당장 국내외 CP사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망 이용대가 인하나 아예 인터넷 망 상호접속 제도 개정 등의 요구를 공식화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CP들의 의견이 관철될 경우 페이스북과 같이 별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무임승차'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버를 해외에 둔 글로벌 CP가 품질에 상관없이 접속 경로를 사실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CP들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CP들은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만 있는 상호접속 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상호접속제도를 폐지하고 나아가 망 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CP 측 주장이다.

반면 정부와 통신업계에선 ISP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망 비용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입장이다. 실제 상호접속제도는 태생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참여자가 공평하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2심에서 페이스북의 접속 지연 행위의 고의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외만이 아니라 국내 CP들까지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백색국가 日 제외' 이번주 시행할 듯

수출우대 '가 지역' → '가의 2' 격하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관보에 고시한다. 정부는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고시 개정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대부분 마치고 장관 결재와 관보 게재 등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시는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고시 개정의 핵심은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지역인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나누고 일본은 '가의 2' 지역으로 격하하는 것이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에 대한 맞대응 조치다.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되면 '가 지역'일 때 누렸던 포괄허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비민감 전략물자 1138개 품목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마다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와 검토 기간도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고시 개정에 대해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전 설명 등 절차상 규정도 충실히 밟은 만큼 일본이 문제 삼을 여지가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한일 양국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일 관계는 당분간 더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파란 가을하늘 아래 가을 문턱에서 맑고 푸른 하늘을 그저 넋 놓고 바라보는 건 어떨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서울 영등포구 원효대교에서 바라본 하늘에 흰 뭉게구름이 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기업 10곳 중 3곳 "올해 신규채용 축소"

국내외 경기상황 악화 탓

올해 대기업 10곳 중 3곳이 지난해보다 신규 채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경영 환경의 악화가 채용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2019년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채용 계획'에 따르면 대기업 33.6%가 신입과 경력 등 신규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줄인다고 답했다. '작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8.9%,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7.5%에 그쳤다.

신규 채용을 줄인다고 응답한 기업은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상황 악화'(47.7%)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회사 내부 상황 어려움'(25.0%),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15.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와 반대로 신규 채용을 늘린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미래 인재 확보 차원(43.5%) △회사가 속한 업종의 경기상황 개선(26.1%)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인력 충원(8.7%) △지원정책으로 인한 회복 기대(8.7%)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기업들은 채용 형태로 수시채용(75.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개채용(73.3%) △추천채용(48.9%) △정규직 전환형 인턴채용(44.3%) △채용박람회(32.1%)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 역시 수시채용의 비중이 높았다. 공개채용 이외 수시채용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55.0%(72개사)로, 이들 기업의 공개채용과 수시채용 비중은 평균 35.6%와 63.3%로 조사됐다. 수시채용 비중이 90% 이상이라는 응답 또한 29.2%(21개사)에 달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하루 570만 배럴 감소〉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산유량 절반 타격

예멘 후티 반군이 드론 공격
중동發 수급불안 '유가 비상'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되면서 세계 원유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1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이날 아람코의 석유시설이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사우디는 이번 공격으로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시설 두 곳을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8면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이번 피습으로 하루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사우디 산유량의 절반이며 전 세계 산유량의 5% 이상에 해당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8월 사우디는 하루에 98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다.

드론 공격받은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석유시설 2곳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압둘아지즈 빈 살만 장관은 이번 공격으로 에탄올과 액화천연가스 공급도 50%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의 생산 급감으로 국제유가는 요동칠 전망이다. 사우디가 비축유로 공급 부족분을 메운다는 입장이지만 수급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앤드루 리포우 리포우 석유협회 대표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유가가 당장 16일 배럴당 최대 10달러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프랑스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란에 적대적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경질로 양국 충돌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됐지만 이번 공격으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하고 사우디 방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공격은 아람코가 상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발생했다. 아람코는 사상 최대로 예상되는 기업공개를 위해 최근 주관사를 선정했으며 이르면 11월 중 상장할 계획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이재용 부회장〉

JY, 삼성물산 해외현장 첫 방문… "중동은 기회의 땅"

추석연휴도 현장경영… 사우디 지하철 공사장 찾아 격려
관계사까지 챙기며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의지 밝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한국시간) 삼성물산의 해외 건설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 관계사의 해외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후 잠시 숨을 골랐던 이 부회장이 명절 연휴 전날과 마지막 날 현장 경영에 나서며 흔들림 없이 위기 돌파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재계는 풀이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주요 연구개발(R&D) 조직인 삼성리서치를 방문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이 방문한 곳은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이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추석 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동은 탈석유 프로젝트를 추구하면서 21세기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은 지금 이 새로운 기회를 내일의 소중한 결실로 이어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도심 전역에 지하철 6개 노선, 총 168㎞를 건설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광역 대중교통 사업이다. 2013년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전 국왕의 왕명에 의해 시작됐다. 삼성물산은 FCC(스페인), Alstom(프랑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6개 노선 중 3개 노선의 시공을 맡고 있으며, 2020년 준공 예정이다.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지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이 부회장은 6월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승지원으로 초청해 미래 성장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동 지역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에 5000억 달러(약 58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네옴(NEOM)'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동에 앞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옥을 방문해 "중동 지역 미래 산업 분야에서 삼성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설이나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해외 현지 사업장을 찾거나 해외 고객사 대표 및 정상급 인사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2월 설 연휴에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 생산라인을 방문, 현지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2016년 설에는 미국에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같은 해 추석 연휴에는 인도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2014년 설 연휴에는 미국을 방문해 현지 이동통신사 대표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 조치가 나온 직후부터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등 전국 사업장을 돌며 부문별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정의선, 수소전기차 脫일본… 기술 자립 '가속페달'

기초선행硏 설립 경쟁력 강화
전극 등 핵심소재 국산화 추진
'日기술 의존 탈피' 정부에 화답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첨단소재 및 에너지 분야 선행기술 확보에 나섰다. 일본의 수출규제 확산에 대비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 개선' 주문에 대해 즉답한 셈이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부회장은 첨단소재와 에너지 원천기술 연구를 위한 '기초선행연구소'를 최근 연구개발본부 산하에 설립했다.

기초연구 중심의 이 연구소가 글로벌 원천기술 경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 강화와 그룹 차원의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 연구조직 설립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작했다.

한국 차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1974년 일본 미쓰비시 기술을 바탕으로 최초 고유모델 포니를 선보인 이후 대일본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줄었다. 1990년대 말에는, 자체 엔진개발을 시작으로 일본차와 견줄 만한 기술을 갖췄다. 2000년대에는 미쓰비시에 (세타)엔진기술을 전수할 만큼 오히려 격차를 벌렸다. 친환경 전기차 역시 국내 전지업체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 중인 덕에 상대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확산에 따른 여파가 크지 않다.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정이 다르다. 정 부회장이 적극 주도해온 친환경 수소전기차 분야에서는 핵심 소재와 부품 일부가 일본산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는 촉매를 비롯해 전극, 전해질, 분리판 등 핵심소재를 독일과 일본 기업에서 나눠 공급받는다.

결국 이번 기초선행연구소 설립은 정 부회장이 스스로 던진 '수소사회' 출사표에 대해 책임의식을 지니고 기술자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핵심 소재부품 대부분도 이른 시일 안에 국내 생산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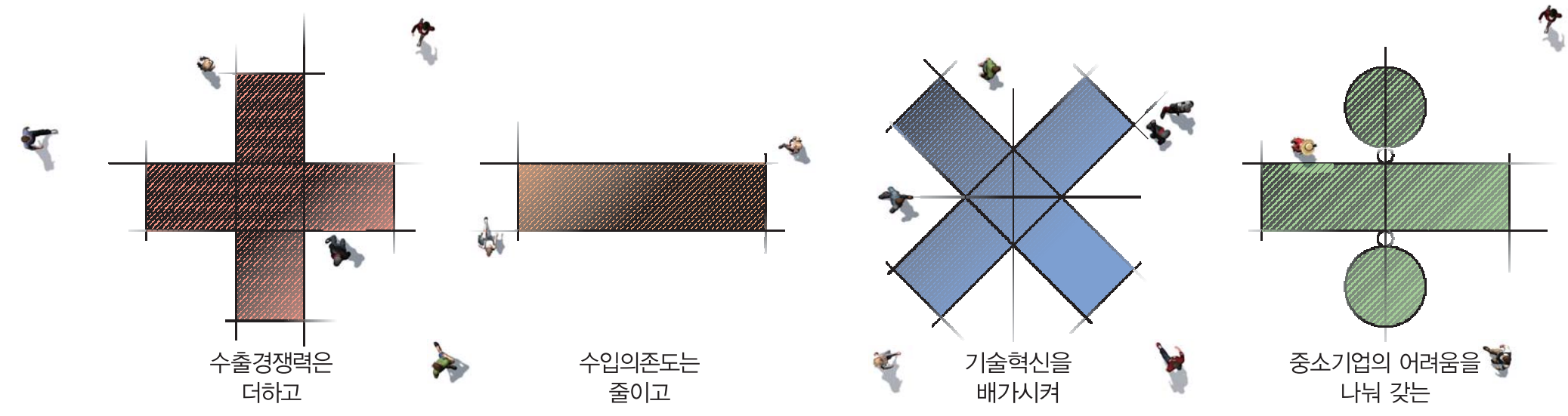
정부가 추진 중인 '대일본 기술 의존도 탈피' 주문에 대한 화답 성격도 지닌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개최한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기술자립도 제고를 주문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7월 문 대통령의 당부에 이어 8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단계에서 현대차가 기초선행기술 연구확대 청사진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전략이 곧바로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기술독립운동에 참여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www.smtech.go.kr)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수입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	**총 210억원**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총 사업비 65% 한도 내, 최대 **2년, 6억원** 이내

〈인터넷 제공 사업자〉 〈콘텐츠 제공 사업자〉

ISP "망 비용 분담 당연"… CP "국내기업 역차별"

뜨거운 감자 '인터넷 상호접속'

인터넷의 상호접속 고시를 두고 정부와 이통사업자, 국내외 콘텐츠제공 사업자(CP)가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상호접속 고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CP들은 상호접속 고시가 시행된 이후 해외 CP들로부터 망 이용료를 받아 역차별 논란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상호접속 고시의 탄생… '공정한 경쟁' 목표 = 상호접속 제도는 과거 미래창조과학부가 2005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문제점을 개선해 2016년 1월 시행됐다. 국내 이통사들이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속해 끊김 없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국내 인터넷망 시장에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있다. 이통사의 인터넷망으로는 전국에 모두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상호 간 인터넷망을 연동하기로 약속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상호접속 고시가 개선되기 전인 2016년 이전 KT는 네이버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고 SK브로드밴드는 가입자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았다. KT와 SK브로드밴드 간 연결된 망에 대한 이용료는 서로 주고받은 트래픽 양이 비슷하다 보니 '망 이용료를 주고받지 말자'는 무정산 방식이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이 바뀌며 CP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양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보내는 트래픽의 양은 증가하지 않게 됐고, 해외 CP들은 국내 사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지만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탄생하게 된 것이다.

개인과 인터넷 사용량 비슷하던 CP 기술 발달하며 대용량 트래픽 발생
2016년 상호접속고시로 비용 지불
CP "해외기업에만 유리" 폐지 주장
정부 "이해관계 복잡… 개선은 필요"

상호접속 고시가 개선된 것은 인터넷망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모든 사용자와 기업들이 공평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기 위한 취지다. 국내 CP들은 이때부터 해외 CP들로부터 망 이용료를 받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통신사업자가 상호 정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해 CP들에게 비용을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내외 CP "무정산 방식으로 개선해야" =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가 CP들에게 망 이용 대가를 떠넘겨 CP들의 비용이 증가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이전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특정 기준 없이 2016년 이후 늘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CP가 어떤 이유로 얼마가 올랐는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망 이용 대가를 추정할 수 있는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통계 역시 2016년 이후 망 이용 대가가 증가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국내외 CP는 통신사업자와 무정산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사업자와 CP 간 상호접속 고시 관련 무정산을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이 비슷하기 때문에 시너지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CP들은 주로 상대로부터 송수신 되는 신호를 타망으로 전송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보다 타망 전송 의무가 없는 '피어링' 계약을 선호한다. 피어링은 정산 방식에 따라 무정산과 정산방식을 채택한 페이드 피어링으로 구분된다.

국내는 해외와 다르게 2004년 통신사들에 인터넷망 접속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했다. 실제 발생하는 증설비용과 무관하게 접속료를 무정산으로 하면 국내 통신사들이 구글이나 넷플릭스와 제대로 경쟁하지도 못하고 밀린다는 의견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역시 국내외 CP 역차별 문제 해소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상호접속 제도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해외 CP들이 너무 시장 지배적"이라며 "균형감을 잘 살려 적절한 선에서 상호접속 고시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해외CP들과 국내 통신사업자들 간의 망 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 사적계약으로 이뤄져 정부 개입 여지가 적다"며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도입 및 개선 추진 과정

제도화 이전 (2004년 이전)	인터넷망 상호 접속제도 도입 (2004~2015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 (2016~2017년)	2차 제도 개선안 마련 중 (2018년~)
· 사업자간 자율 협상에 의한 접속 및 정산방식 결정(접속거부 및 회선단절 등 대형 ISP 사업자 불공정행위 및 분쟁 발생,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 상실)	· 2005년 1월 고시 개정을 통해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화 · 인터넷망 단절 및 접속거부 금지 · 접속료 산정원칙 및 접속조건 규정	· 2016년 1월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 · 상호접속 대상 범위 확대(이동망 확대) · 접속료 정산방식 변경 (트래픽 기반, 상호 정산)	· 2018~2019년 제도개선 마련 중 · 접속료 정산방식 및 접속료 수준 검토 · CP시장 및 하위계위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검토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주요 내용

※ 정산방식: 접속회선비, 접속통화료

	접속유형	인터넷 접속조건	접속료 산정방식	접속회선비	접속통화료	호소통범위
제도화 이전 (~2004년)	접속유형 구분 없음	없음	접속회선 동시 구매	접속회선비+port 접속료 (접속회선비의 120%)	이용사업자 부담	제한적
제도화 이후 (2004~2015년)	직접접속과 중계접속으로 구분	Peering Policy에 따른 사업자 계위 구분	접속회선 비용과 접속 통신료를 일괄 또는 분리 산정하여 이용 사업자 선택 가능	동일계위: 접속사업자 간 1/2씩 부담 다른계위: 하위사업자 부담	직접접속과 중계접속으로 구분(동일계위간: 무정산, 다른 계위간: 하위계위 사업자 부담) 중계접속: 접속이용 사업자 부담	중형 ISP의 중계접속을 허용, 중계접속 제공시 full Routing 제한·거부 금지

전문가 의견

"상호접속규제, 페북 판결과 무관 CP의 폐지 요구, 앞뒤 다른 주장"

"제도 본질은 시장경쟁 투명화"

페이스북 판결과 상호접속제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CP들이 상호접속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CP들이 협상 우위를 갖기 위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상우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이번 페이스북 소송건은 통신망에 대한 품질 보장의 의무를 콘텐츠제공 사업자(CP)도 갖고 갈 것이냐, 인터넷제공 사업자(ISP)가 갖고 갈 것이냐의 문제였다"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활용할 개연성은 있지만, 상호접속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상호접속 고시 개정 이후로 망이용 대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페이스북뿐 아니라 CP업계가 전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다.

이 전문위원은 "2016년 마련된 상호접속제도 자체는 합리적으로 잘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는 상호접속제도를 없애면 한국의 IT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CP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전문위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을 거치며 2016년부터 시행된 상호접속 고시 개정 작업을 주도했던 전문가다.

이 전문위원는 상호접속제를 도입한 취지가 결코 CP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한 이유는 인터넷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과거 웹메일을 보내는 정도의 서비스는 상호 비용 유발과 ISP 간 상호 유발하는 비용과 기대하는 편익이 유사했기에 무정산을 했다.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발해진 지금 한 사업자는 더 많은 트래픽을 감수해야 하는 인터넷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조대근 잉카리서치 대표는 "과거 P2P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서버에 접근해 데이터를 들고 오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대세다"면서 "트래픽 교환하는 비율 자체가 대칭에서 비대칭으로 오다 보니, 비용이 많아진 쪽에서 재협상을 하든, 서비스를 중단하든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넷플릭스 트래픽으로 유발된 레벨3(Level3)와 컴캐스트(Comcast)의 페이드 피어링 사례도 언급하면서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들이 계약 방식을 바꾼 것은 철저히 상업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공화국법에 의해 보고서를 내는 프랑스 ARCEP(통신규제당국)처럼 접속 시장에 대한 통계를 모으고 정보를 공개해야 접속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위원도 "프랑스는 정보가 많아 경쟁이 이뤄지는데, 한국은 시장 정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적으로 유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보가 투명해지면 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글로벌 원유시장 혼돈… "유가 1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오일프라이스닷컴 "복구 장기화땐 月 1억5000만 배럴 공급 부족"
블룸버그 "사우디, 석유 인프라 취약성 확인… 유가 상승압박 커져"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글로벌 원유시장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석유 시설이 14일(현지시간) 무인항공기(드론) 공격을 받아 산유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막대한 피해를 본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해당 공격에 대해 원유시장이 반응하고 긴급 석유 비축이 시작되는 등 모두가 두려워하던 사태가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동부 담맘 부근의 아브카이크 원유 탈황·정제시설과 쿠라이스 유전 등 국영 석유업체 아람코의 시설 2곳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몇 시간 만에 진압됐으나 세계 최대 수출국인 사우디 원유 흐름은 거의 확실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동안 중동지역에 대해 긴장을 풀었던 트레이더들이 이번 공격에 반응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 탈황·정제 시설 단지에서 14일(현지시간) 예멘 반군의 무인기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 연기가 치솟고 있다. 리야드 로이터/연합뉴스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국제유가가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3일에 전일 대비 0.4% 하락한 배럴당 54.85달러로 마감했다.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0.3% 내린 배럴당 60.22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WTI 가격은 지난주 약 3%, 브렌트유는 2.1% 각각 떨어졌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주 첫 거래일인 16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5~10달러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퍼센트(%)로 환산하면 WTI 기준 9~18%에 달하는 상승폭이다.

아람코는 피해를 본 석유 시설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복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손실된 원유 산유량에 대해서는 비축유 공급으로 그 영향을 상쇄할 것이며 16일까지 원유 생산량을 정상적인 수준인 하루 980만 배럴로 복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은 피해 복구가 장기화하면 전 세계에서 한 달에 1억500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블룸버그는 피해 복구가 조기에 이뤄질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공격은 사우디 석유 인프라의 취약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중동발 긴장에 유가가 계속해서 강한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에 공격받은 아브카이크 단지는 사우디 석유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시설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사우디 동서를 횡단하는 파이프라인이 바로 아브카이크에서 시작되며 인근 유전에서 생산하는 막대한 원유들도 바로 이곳에서 처리된다. 결국 이 지역에 대한 드론 공격은 사우디 원유 수출 흐름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우려했다.

기존 원유 비축분을 통한 사우디의 석유 수출 유지도 불투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사우디는 비축유를 2016년 초부터 줄이기 시작해 현재 그 규모는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꼬집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배럴당〉

"기름값 인상 쉽지 않은데"… 계산기 든 정유사들

손익 좌우하는 정제마진 약세땐
유가 올라도 실적개선 보장 없어
국내 업계, 두바이유 주로 수입
상대적으로 원가 부담 더 커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 시설이 예멘 반군의 공격으로 가동이 잠정 중단되면서 석유업계가 국제 유가의 변동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아람코의 설비 가동 중단으로 유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업계는 이번 사태가 실적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득실 계산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아람코의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시설의 일시 가동 중단으로 일일 5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최대 10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사들은 그동안 미·중 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감소, 성장 둔화, 수요 부진 가능성으로 상승이 억제되고 있던 유가가 단기간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파악에 나섰다.

통상 유가가 상승하면 원유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인 '재고평가이익'이 늘어나며 수익이 증가한다. 원유를 산 다음 수입해 오기까지 2~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 사이에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정유사들은 제품 가격을 올려 싼 값에 원료를 사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팔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유가 상승이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닌 공급 차질이 원인이라는 점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가격을 유가 인상폭만큼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수익성과 직결되는 정제마진(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가격, 정제비용, 운임비 등을 뺀 비용)이 연동돼 강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 실적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또한 이번 아람코의 생산시설 폐쇄로 가격의 급등이 예상되는 유종은 두바이유라는 점도 국내 석유업계가 이번 사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두바이유에 비해 저렴한 서부 텍사스유(WTI)를 사용하는 북미 석유업체들은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반면, 두바이유를 주로 수입하는 국내 정유업계는 상대적으로 원가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최근에 WTI와 두바이유의 디스카운트가 축소되면서 아시아 정제마진이 반등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두바이유의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WTI의 경쟁력은 강화되며 국내 정유업계는 원재료 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정제마진 약화라는 결과물을 받아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아람코의 생산시설 폐쇄가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재고평가이익이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지만 WTI-두바이유의 갭(gap) 확대는 아시아 정유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석유 업계의 시황 개선이 예상된다. 올 하반기부터 국제해사기구(IMO) 황산화물 배출규제 시행 효과로 경유, 저유황 연료유 등 고부가가치 석유제품 수요 확대가 예상되면서 정유사들의 정제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배럴당 1~4달러에 머물던 정제마진은 7월 7달러대 고점을 찍은 뒤 9월 첫째 주 5.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조국 민심’ 공방 … 與 “국민 피로감” vs 野 “사퇴 요구”

민주당 “민생 살리기 나서야”
18일 조 장관과 당정협의 개최
한국당 “국정조사·특검 관철”
바미 “조 장관 청년들 꿈 꺾어”

여야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민심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이 ‘조국 정국’에 대해 극도의 피로감을 토로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심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회가 민생을 돌보길 희망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과 관련한 민심은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은 실컷 들었으니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일하라는 주문”이라며 “(한국당이) 지난 추경처럼 예산과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 공세에 나서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 등 쏟아진 의혹을 바라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는 절대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개혁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8일께 조 장관이 참여하는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위선자 조국 사퇴촉구 결의대회’로 이름 붙인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조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5촌 조카가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되고, 조국과 배우자 PC의 하드디스크가 검찰 손으로 넘어가 수사는 이제 시작으로 이 정권을 재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오늘도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려고 민생을 이야기하는데 후안무치,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국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성난 추석 민심마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은 조국 사퇴와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성 지지자조차 조국 법무 장관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국민들은) 청년들의 꿈을 꺾어 버린 그의 위선이야말로 법무부 장관 자리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이 추석 민심”이라고 말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조국 정국에서 벗어난 민생국회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조국 국회’로 끌고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조국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굳은 얼굴로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구조조정 선제 대응 방안 이달 발표”

“올 취업자 증가 20만명 넘어”

청와대는 15일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가 정부의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개선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선제적인 산업 구조조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고용 동향과 전망’을 발표하면서 “현재 1~8월의 평균 취업자 증가는 24만9000명으로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만 명을 상당 폭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최근의 고용회복 흐름이 장기간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여건의 회복이 중요한 만큼 경제·고용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또 경제환경이 변하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 구조전환이 불가피한 시대”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자동차와 조선 분야 구조조정을 언급하면서 “필요한 구조조정을 선제로 진행하는 게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며 “내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구조조정 선제대응 패키지 산업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 및 선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구조조정에 선제 대응하는 정책을 디자인하면 이를 과감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이런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의 충격이 일시에 나타나지 않게 일자리 나누기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이어서 한국형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비핵화 협상 불씨 살리는 문 대통령

文, 24일 뉴욕 유엔총회 참석
9번째 한미 정상회담 예정
트럼프와 대북 제재 완화 논의

3차 북미 정상회담 연내 개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멈춰선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재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후 9번째다. 북미 실무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볼턴 보좌관을 경질하기 전날 대이란 제재완화를 시사했다’는 14일(현지 시간) 미 NBC방송의 보도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에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어느 시점’이라고 말한 점도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문 대통령의 전격적인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는 북미 간 ‘촉진자’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애초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이번 유엔총회 참석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9월 하순 북미 협상 재개가 가시화되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요구한 ‘새 계산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안전보장과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카드까지 내민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엔총회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함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주목된다. 신동민 기자 lawsdm@

고령화에 건강보험·기초연금 지출 '눈덩이'

건강보험·기초연금 의무지출만 2050년 '100조+α'
국가채무비율 2년 뒤 40% 넘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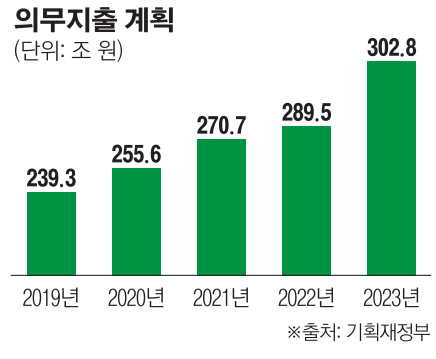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정책의 영향으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향후 4년간 40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기재정지출계획'에 따르면, 총재정지출 중 의무지출 규모는 올해 239조3000억 원에서 2023년 302조8000억 원으로 연평균 6.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올해(본예산) 106조7000억 원에서 2023년 150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8.9%씩 는다. 총재정지출 증가분의 68.5%가 복지 분야 증가분이다.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원단가와 대상이 정해진 법정지출이다. 지출을 줄이려면 법을 개정해야 해 재량지출에 비해 경직적이다.

의무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노인(65세 이상) 인구 증가다.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수급자 및 수급기간 증가로 연평균 10.3%씩 증가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23조 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은 16조9000억 원에서 23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의무지출도 각각 3조40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 3조4000억 원에서 3조9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도 각각 8조7000억 원에서 12조7000억 원, 9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진료인원 증가와 비급여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의 영향이다. 기초연금도 수급자 확대와 최대 급여액 인상으로 올해 11조5000억 원(국비)에서 2023년 17조 원으로 늘 전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무지출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12조5000억 원에서 16조 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50년이면 347조7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 5.7%에서 2050년 10.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케어와 노인복지 확대로 건강보험, 기초연금 의무지출만 2050년 100조 원을 넘어선다.

이런 급격한 의무지출 증가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0년 100%를 넘었고, 2011년 20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226%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휘발윳값 상승세 유류세 환원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휘발윳값 상승세가 추석 명절까지 이어지고 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날인 11일(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523.74원으로 전날의 1523.24원보다 0.5원 올랐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제2 안심전환대출'에 안심 못하는 채권시장

은행 의무보유기간 확대… 은행채·국채 발행 증가에 수급 부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인 제2 안심전환대출에 채권시장은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의무보유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은행채 순발행 및 내년 적자국채 발행 증가와 맞물린 수급 부담 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14일 주택금융공사와 채권시장에 따르면 추석 직후인 16일부터 2주간 연 1%대 금리를 앞세운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제2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일괄심사 후 10~11월 중 대출이 이뤄진다.

신청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당시 30조 원 규모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2015년 1년이었던 은행 의무보유기간이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점이 부담이다. 듀레이션 장기화에 대비해 은행들이 국고채 매수를 꺼리거나 기존 채권을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가급적 장기보유를 희망해 5년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이를 보유해야 하는 은행들은 3년 정도가 무난할 것이란 입장이 다수인 가운데, 2015년과 같은 1년 혹은 최장 5년까지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금공은 의무보유기간과 함께 매입절차 등 협의를 늦어도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채권연구원은 "기존 대비 은행의 MBS 보유 규모가 늘어나고 보유계정 듀레이션이 길어질 경우 국고채 시장은 은행이 국고채권 매수에 적극적이지 않을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채권연구원은 "의무보유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듀레이션을 줄일 필요가 있는 은행들은 고유동성 자산커버리지비율(LCR) 기여도가 낮고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일부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급증 이슈와 함께 최근 은행채 발행이 늘고 있는 점도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잖아도 은행채 순발행은 7~8월 연속 증가 추세다. 예금만기도래와 추석자금 인출수요 등으로 LCR를 충족키 위해서다. 이 연구원은 "올 은행채 누적순발행은 8월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하기 시작해 2조20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은행의 연간 누적순발행 규모 16조~20조 원과 비교하면 향후 10조 원 이상의 은행채 추가 발행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1일 현재 1.397%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16일 사상 최저치(1.172%) 대비 22.5bp 급등한 상황이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내년 1인당 稅부담 750만원 2023년 850만원 넘어설 듯

인구 증가율 둔화 영향
조세부담률은 되레 하락

국민 1인당 내년 세부담이 750만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023년엔 85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292조 원, 지방세수입은 96조3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의 합계(388조3000억 원)를 내년 추계인구(5178만 명, 중위)로 나눈 1인당 세부담은 749만9000원이 된다. 올해(740만1000원)보다 9만8000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은 각각 연평균 3.4%, 4.9%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294조8000억 원에서 2023년 336조5000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올해 87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06조4000억 원으로 늘 것으로 추산된다.

단 1인당 세부담 증가가 곧 실제 세부담 증가를 의미하진 않는다.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기준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22.1%가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이고, 국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납부대상에서 비경제활동인구와 면세자가 제외돼서다.

특히 다른 세부담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오히려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 총액을 경상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하락하고, 2022년 19.3%, 2023에는 19.4%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1인당 세부담은 인구 증가율이 세수 증가율에 못 미치면 상승하는 반면, 조세부담률은 세수 증가율이 경상 GDP 증가율보다 높으면 오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내년 인구 증가율은 0.14%에 머물 전망이다. 경상 GDP 증가율은 세수 증가율과 유사하게 내년 3.8%, 2021년 이후 4.1%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석탄발전소 20곳, 2030년까지 LNG로 변경

정부, 脫석탄 정책 본격화

정부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탈(脫)석탄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의 3분의 1이 LNG 발전소로 탈바꿈하게 된다.

15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석탄 화력을 운영 중인 다섯 개 발전 공기업은 최근 전력거래소에 노후 석탄 화력 16기를 2030년까지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미 연료 전환이 확정된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를 더하면 전환 규모는 20기로 늘어난다. 발전 공기업에서 현재 운영 중인 석탄 화력(60기)의 3분의 1이다.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들 공기업의 의향서를 토대로 올 연말 중장기 전력(電力) 정책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수급이나 계통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업자 의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 화력을 새로 짓지 않고 노후 발전소는 연료 전환하거나 폐기해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이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으로 석탄 화력이 배출한 초미세먼지는 2만7000톤(전체 배출량의 약 9%)에 이른다.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때 LNG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석탄 화력의 8분의 1이다.

남아 있는 석탄 화력도 설 곳이 줄어들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범국가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2월엔 석탄 화력 14기, 3월엔 22기를 가동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동하는 석탄 화력도 출력을 최대 출력의 80%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에만 석탄 화력의 출력을 제한하고 있다.

탈석탄의 최대 과제는 비용이다. 전력생산 원가가 높아지면 전력 소매사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가중된다. 기후환경회의는 석탄을 LNG로 발전원을 대체하면 전력 1kWh당 8.7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원양어업 종사자 0.1% 감소… 임시·일용직 131% 급증

해수부 '작년 원양어업 통계'

지난해 원양어업 기업체 수는 3개사가 증가했지만, 전체 종사자 수는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15일 발표한 '2018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주요결과'에 따르면 원양어업 단독기업체는 39개에서 42개로 3개사 증가했으며 어선 척수는 211척으로 같았다.

전체 종사자 수는 9990명에서 9984명으로 0.1% 감소했다. 중견기업은 6487명에서 6368명으로 1.8% 감소했으나 중소기업은 3503명에서 3616명으로 3.2% 늘었다. 특히 상용근로자 수는 9819명에서 9589명으로 2.3% 감소했으나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71명에서 395명으로 131% 늘었다. 중견기업은 상용근로자가 4.8% 감소했으나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34.3%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상용근로자가 2.2% 증가했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도 116.1% 늘었다. 전년 대비 원양어업 전체 기업체의 부채비율은 90.9%에서 88.0%로 하락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한 글자로 풀어본
사회적 가치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온

: 기업과 사회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능성의 스위치를 ON!
온 세상의 행복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을 뜻함

다양한 사회적 가치로
'온' 세상의 행복을 'ON' 시킬 수 있도록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불타는 '호르무즈'…소재 산업도 속 탄다

중동産 알루미늄·화학 제품 공급 악영향 우려

원유 등 해상 운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알루미늄이나 화학 등 소재 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동 국가들은 21세기 들어 비에너지 산업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 세계 무역에서 그 비중을 높여왔다. 중동산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해온 일본 기업도 많아 미국과 이란의 대립 격화 등 중동 긴장은 에너지 이외 다른 여러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경종을 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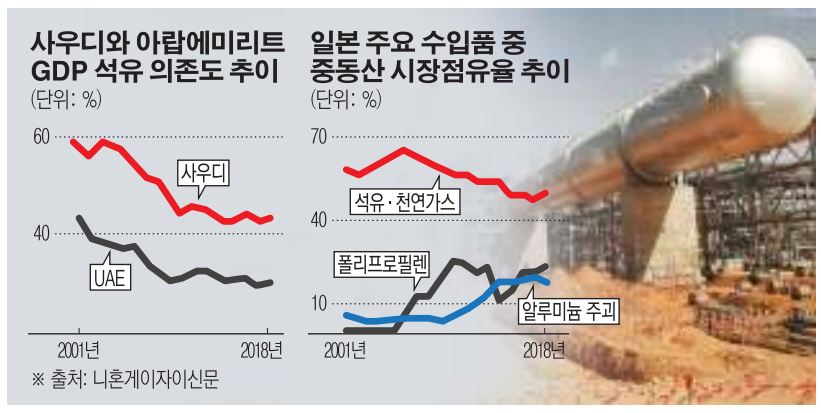
닛케이는 국제무역센터(ITC)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호르무즈해협에 접한 중동 7개국에서 수출되는 개별 품목의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했다.

수지 제품의 원료가 되는 에테르와 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이나 화학비료에 쓰이는 암모니아 등에서 중동산의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0~30%대에 달했다. 그 비중은 불과 10년 만에 2~5배로 급성장했다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지난해 폴리프로필렌 부문에서 중동산 점유율은 24.3%에 달했으며 에틸렌은 23.7%, 암모니아 30.5%, 에테르가 33.1%를 각각 기록했다.

2008년 거의 제로였던 중동산 알루미늄 주괴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6%로 껑충 뛰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구리 등 비철금속 점유율도 15% 안팎을 각각 기록했다.

이 같은 배경에 있는 것이 '탈석유'를 내건 중동 각국의 경제 개혁이다. 미국의 셰일혁명과 원유시장의 침체 등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은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산업 구조로의 전환에 사활을 걸게 된 것이다. 이런 전환의 선두에 선 것이 바로 원유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물질과 비철금속 등 소재 산업이었다.

중동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그만큼 발전소의 전기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 또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적극적 투자를 단행해 최신 설비를 도입, 고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에 힘입어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미주 지역 등으로 활발하게 수출도 이뤄졌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석유 부문 비중은 사우디가 2001년 약 60%에서 지난해 40%대로, UAE는 40% 이상에서 30%대로 낮아졌다. 그만큼 해운 수송 대동맥인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정세 악화는 석유는 물론 다양한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됐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호르무즈 위기'의 단초가 됐던 6월 발생한 2척의 탱커에 대한 공격에서 일본 기업 소유의 선박 1척이 수송하고 있던 물품은 원유가 아니라 미쓰비시가스화학과 사우디 기업의 합작회사가 현지에서 생산한 메탄올이었다. 미쓰비시케미컬홀딩스와 스미토모화학도 최근 중동에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석유화학제품의 수입 물량에서 중동산 비중은 현재 10%를 넘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아울러 제조 시 대량의 전력을 사용하는 알루미늄 부문에서도 중동세가 최근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중동 각국에서 수입한 알루미늄 주괴가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은 지난해 17%로, 10년 만에 3배 뛰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대립 격화 등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업계는 운송비용 증가와 조달 차질 등을 우려하게 됐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인터넷銀 예금·가상화폐 상속 어떻게?

디지털 유산 '엔딩노트'에 쓰세요

디지털 자산이 증가하면서 이를 상속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5일(현지시간) 디지털 유산의 실태와 상속에 대비해 주의점을 소개했다.

인터넷 은행의 예금, 주식, 펀드, 보험을 비롯한 가상화폐, 전자화폐를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상속세는 15조6000억 엔(약 173조 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상속 자산은 현금 예금이나 유가 증권 등 금융자산 비중이 컸다. 노년층의 인터넷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자산 상속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상속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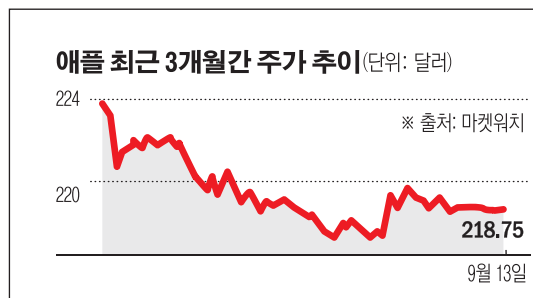
디지털 유산 상속의 첫 걸림들은 상속인이 디지털 자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우편에 의한 통지 의무 등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혹여 디지털 자산의 존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ID를 몰라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이런 문제와 관련,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은 "배우자나 자녀는 피상속인이 평소 어떤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상속인은 남겨진 가족에게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것을 기록하는 엔딩노트에 디지털 자산의 거래처를 기입해 두는 것이 좋다. 계정 ID를 적어둘 경우 진행은 더 원활할 수 있다.

디지털 유산을 확인했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가 정한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0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체납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최근 가상화폐 급증 추세를 반영해 일본 국세청은 2018년 11월 가상화폐 상속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상속인은 먼저 가상화폐 거래업체의 잔고증명서를 통해 액수를 파악해야 한다. 잔고증명서 확인 후 내용에 동의하면 사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해 대표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김서영 기자 0jung2@



골드만삭스 "무료구독 문제" 애플 목표주가 '하향조정'

165달러로 26%나 낮춰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애플의 목표주가를 대폭 낮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애플의 목표주가를 기존 187달러에서 165달러로 26% 하향 조정했다. 월가 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이다. 애플에 대한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골드만삭스는 애플의 목표주가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배경으로 애플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TV 플러스(+)'의 '1년 무료구독' 회계 처리 방법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애플카드 제휴 파트너인 골드만삭스가 애플에 대해 큰 타격을 주는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로드 홀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애플TV+가 1년 무료구독을 제공하면서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묶어 60달러(약 7만 원) 할인을 적용한다"면서 "이 회계 방법은 고객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출이 하드웨어에서 서비스로 옮겨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방식이 서비스 매출 부문에서는 애플 측에 편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 평균 판매 가격(ASPs)과 마진 부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이날 성명을 내 골드만삭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애플은 "애플TV+ 출시와 서비스 회계 처리 방법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의 목표주가 조정 이후 13일 애플 주가는 장중 한때 2.6% 하락했지만, 애플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낙폭을 줄여 1.9% 감소한 218.75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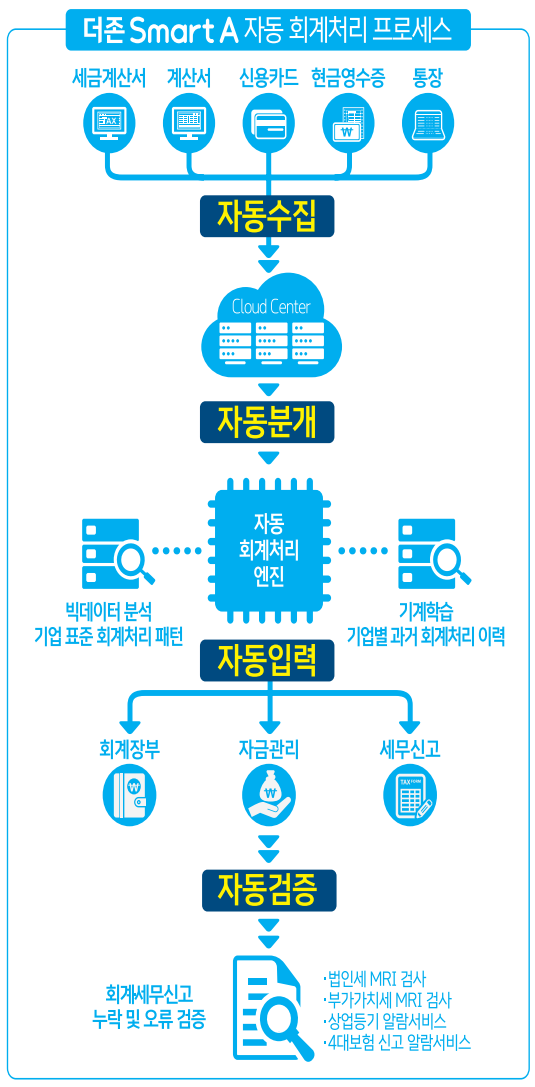
김서영 기자 0jung2@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DOUZONE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금감원 '조국펀드' 정관 위반 소극적 대처 논란

'코링크PE' 운용 4개 펀드 정관 살펴보니

운용전략·출자 기업 재무제표 등 반기별 투자현황 의무 보고 명시

조 장관 "투자처 몰랐다" 밝혀 사실상 정관 위배… 당국, 조치 無

"檢 수사로 당장 조사 어려워" 해명

금융감독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자금을 투자받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정관 위배 사실을 알고도 검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펀드 정관 위배는 검사 대상임에도 금감원이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정관 위배 사실을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이투데이는 코링크PE가 계약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 1호, 그린코어밸류업 1호, 블루코어밸류업 1호, 레드코어밸류업 1호 등 총 4개 펀드의 정관을 입수했다.

2017년 10월 10일 작성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 1호 정관 제 23조에 따르면 업무집행사원은 매 반기마다 전체 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 및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기관의 자산운용 및 모니터링 기법 등에 관한 정보 교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회사 및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를 투자자에게 매 반기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의 정보 요청권도 상세히 서술돼 있다. 투자자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해 회사 재산의 운용 현황 및 운용 전략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유한책임사원이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해 8월 8일 작성된 그린코어밸류업 1호 정관, 2016년 7월 20일 작성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정관, 2016년 5월 10일 작성된 레드코어밸류업 1호 정관 등 총 4개 펀드 정관 모두 '보고' 항목에 업무집행사원의 투자목적회사 현황 등에 대한 투자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코링크PE 운용 펀드 정관 ※ 출처: 김종석 의원실

펀드명	정관 작성일	정관 내용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 1호	2017년 10월	제23조: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 현황 보고 의무 명시
그린코어밸류업 1호	2017년 8월	제23조: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 현황 보고 의무 명시
블루코어밸류업 1호	2016년 7월	제22조: 회사 운용현황 및 운용전략 보고를 위한 투자 보고 의무 명시
레드코어밸류업 1호	2016년 5월	제23조: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 현황 보고 의무 명시

조 장관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8월 초부터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지 몰랐다"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금감원은 조 장관의 발언과 이에 따른 보도로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의 정관 위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검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 책자에서도 '업무집행사원의 정보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항목에 따르면 업무집행사원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조 장관 가족 자금이 투입된 코링크PE 검사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 장관 얘기가 언론에 나와서 해당 펀드가 이슈가 됐으나 그동안에는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당 펀드를 검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펀드가 정관을 위배한 것은 감독원 검사 대상이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간 상황에서 당장 검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실적으로 펀드 개수만 600개가 넘고 운용사도 270개가 넘는 상황에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해명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NH카드 차세대 시스템 도입 잘 부탁합니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 14일 경기도 의왕시 통합IT센터를 찾아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카드 차세대 시스템의 성공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이 행장은 "추석 연휴에도 카드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연휴 기간 고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NH농협은행

카뱅 '신용 조회 서비스' 이용객 340만명 돌파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은 '내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자 수가 340만 명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내 신용정보 서비스'는 본인의 신용 점수를 카카오뱅크앱에서 계좌개설 없이 신용 점수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출시 이후 28일 만에 이용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약 8개월 만에 누적 300만 명(중복 제외)을 넘어서는 등 이용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용자 수는 9월 10일 기준 344만4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0만 명가량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개인의 신용정보는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 생활을 위한 주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며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할수록 대출 한도나 금리, 신용카드의 발급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상시 잘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의 '내 신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 신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는 비율은 미이용자 대비 3배에 달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고객이 직장 변동, 부채 감소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용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가 37.1%로 가장 많았고, 20대도 29.8%로 많았다. 성별은 남성이 58%로 여성 42%에 비해 더 높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적극적인 신용정보 관리를 돕기 위해 '내 신용정보 서비스'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KB금융, 4년 연속 'DJSI 월드지수' 편입

KB금융그룹은 14일 미국 다우존스가 발표한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에서 4년 연속 월드지수에 편입됐다고 15일 밝혔다.

DJSI는 미국 S&P 다우존스와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스위스 로베코샘(RobecoSAM)이 공동 개발한 지속가능경영 지수이다.

글로벌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책임', '환경 경영' 등의 비재무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DJSI 월드지수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26개 글로벌 기업 중 12.6%인 318개, 국내 기업 중에서는 20개가 편입됐다. 은행산업 부문에서는 글로벌 금융기관인 뱅크오브아메리카, BNP파리바 등을 비롯해 전 세계 25개 금융회사가 포함됐다.

KB금융그룹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최상위 등급인 월드지수에 편입됐고 리스크 관리, 고객관계 관리, 금융포용성, 금융범죄 예방정책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는 등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곽진산 기자 jinsan@

오늘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年 1%대 금리로 갈아타세요"

1주택자 대상 총 20兆 지원 신규 목적 집단대출은 제한 대출금, 만기 일시 상환 불가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 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 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까지만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 실제 적용 금리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금리는 대출 기간(10·15·20·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본 1.95%인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아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만 하고 대출 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에서 하면 은행 창구와 같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정부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안심전환대출 공급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의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 면적이 50%를 넘지 못하는 복합건축물은 안심대출 대환 대상에서 배제됐다.

공급 대상은 부부(미혼일 경우 본인) 기준 1주택자로 한정된다. 대환 대상 대출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정책 모기지는 대환 대상이 아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중도금대출, 기업한도대출도 대환 대상이 아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다.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이고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의미한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까지 안심대출 신청 대상이 된다. 또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KB·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이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규 목적의 집단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대출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아야 한다. 곽진산 기자 jinsan@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전환대출 상품

기존 대출 요건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 보유수	1주택자
주택가격(시가)	9억 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85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 원)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 · 최대 5억 원 한도 · LTV 70% · 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수치 · 70%/60% (기존 대출범위 내)

금리(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9~10월 중 결정)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은행창구	1.95	2.05	2.15	2.20
주금공 홈페이지 (전자약정 등기시)	1.85	1.95	2.05	2.10

※출처: 금융위원회

〈미중 무역전쟁 · 한일 수출규제 · 글로벌 경기 침체〉

산업계, 퍼펙트 스톰에 갇혔다

3분기 우울한 실적 전망

국내 산업계가 둘 이상의 태풍이 충돌해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퍼펙트 스톰'에 갇혔다. 글로벌 경기불황 속에서 일본과의 무역갈등과 미·중 통상전쟁이 겹치면서 국내 산업계의 3분기 실적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월 국내 주요 1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하반기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업들은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를 가장 우려되는 세계 경제 불안 요인으로 지적했는데, 이 걱정이 현실화한 것이다.

15일 산업계 및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 3분기 각각 6조9741억 원, 4078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3%, 93.7% 급감한 것이다.

최근 반도체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큰 재고 부담을 안고 있다. D램 가격은 8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올랐고 낸드플래시 역시 2개월 연속 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고객사의 보수적 구매로 제한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3분기까지는 PC와 모바일 D램 수요에 의한 실적 방어 구간으로 4분기가 돼서야 서버 D램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가전·전자부품 업계도 동반 실적 하락이 예상된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8% 감소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도체 업황 침체와 함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수익성이 많이 낮아졌고 재고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1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사와 세트사들이 구매 태도를 보수적으로 전환하며 패널 수요 위축이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기 대문이다.

LG전자는 H&A(생활가전)를 제외한 HE(TV)·MC(모바일)부문의 수익성 약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한 57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전자
D램값 올랐지만 거래 제한
삼성 -60% 하이닉스 -94%

정유·화학
고부가 화학제품 가격 약세
재고 늘어…SK이노 -51%

자동차·부품
코나 등 SUV 판매 호조 계속
"6월부터 신차 모멘텀 확대"

화학·정유업계도 비상이다. LG화학, 롯데케미칼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29.5%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 부문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 자동차·가전 판매가 지속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관련 고부가 플라스틱(ABS), 폴리카보네이트(PC),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등의 가격이 약세를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K이노베이션과 S-Oil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0.6%, 32.7%씩 줄어든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사 피폭 변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3분기 부정적 재고 효과로 석유사업의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조선업계는 다시 주저앉았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7%, 54.2%, 26.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중공업은 영업손실 139억 원을 기록, 적자 지속을 나타낼 전망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8월 전 세계 수주량 1위를 기록하며, 중국을 제치고 넉달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올해 대형 컨테이너선의 발주량이 크게 떨어졌다. 올 1~8월 전 세계 1만2000TEU(20피트 컨테이너) 이상 급 컨테이너선 누적 발주량은 57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로 지난해 114만CGT의 절반 수준이다.

철강업계도 포스코, 동국제강이 32.5%, 4.4%씩 감소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제품 공급가격 인상에 나섰지만, 조선과 자동차 등 수요업체가 업황 부진을 이유로 인상이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하면서 가격 협상 타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기저효과로 영업익이 111% 상승한 215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0월 선고된 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 결정에 따라 영업익이 급감해 1000억 원대에 머물렀다

항공업계는 실적이 개선된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이 각각 23.9%, 14.4% 감소한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여행 불매운동이 휴가철 성수기 효과를 상쇄시켰다.

한편 자동차 업계는 SUV 판매 호조로 전년 대비 상승한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판매 회복과 SUV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243.4% 증가한 992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신차 출시를 앞둔 쏘나타가 감소했으나, 코나, 투싼, 팰리세이드와 같은 SUV 수요 증가가 전체 판매 증가를 견인, 8월 SUV 판매 비중 6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44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2.8% 급증했다. 6월 시작된 신차 모멘텀이 향후 3~4개월간 뚜렷하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 3분기 영업이익 전망 (단위: 억 원)

		3분기 영업이익 전망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도체·전자	삼성전자	69741	-60.3%
	삼성전기	1627	-59.8%
	삼성SDI	2498	3.4%
	LG전자	5753	-23.2%
	LG디스플레이	-2160	적자전환
	LG이노텍	1472	13.5%
	SK하이닉스	4078	-93.7%
정유·화학	LG화학	4688	-22.2%
	롯데케미칼	3553	-29.5%
	한화케미칼	1123	19.7%
	SK이노베이션	4125	-50.6%
	S-OIL	2124	-32.7%
조선·중공업	현대중공업	2576	-27.7%
	삼성중공업	-139	적자지속
	대우조선해양	811	-54.2%
	두산중공업	2670	26.1%
항공	대한항공	3058	-23.9%
	아시아나항공	1310	29.7%
	제주항공	324	-14.4%
철강	포스코	10338	-32.5%
	현대제철	2157	111.2%
	동국제강	503	-4.4%
자동차 부품	현대차	9920	243.4%
	기아차	4491	282.8%
	현대모비스	5671	22.7%

※ 출처: 업계 및 에프앤가이드

재계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세심한 정치·외교 조율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미국 덴버에서 열린 영상가전 전시회 'CEDIA 엑스포 2019'에서 LG전자 관계자가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LG '올레드 8K TV' 美 공략 시동

영상가전 'CEDIA 엑스포' 참가

LG전자가 10~14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영상가전 전시회 'CEDIA 엑스포 2019'에서 'LG 시그니처 올레드 8K'와 나노셀 TV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북미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는 미국 전문매체 'CEPro'가 선정한 'CEDIA 엑스포 2019 어워드' 홈씨어터/멀티룸 AV 부문에서 최고 제품에 선정됐다.

LG전자는 8K TV 전 모델이 해상도와 관련한 국제표준에 부합해 화소 수 및 화질 선명도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가로 7680개, 세로 4320개로 총 3300만 개 이상인 화소 수는 물론, 화질 선명도는 기준치인 50%를 훌쩍 넘는 90% 수준으로 선명한 8K 해상도를 구현한다. 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ICDM)는 화질 선명도가 50% 이상인 때에만, 화소 수를 해상도로 인정하고 있다. 이 규격은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TV는 또 2채널 음원을 마치 5개의 스피커로 듣는 것처럼 가상의 5.1 서라운드 사운드로 바꿔주고, TV가 설치된 공간에 최적화된 입체음향도 들려준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아시아나, '뉴욕 42만원' 특가

아시아나항공이 뉴욕 증편 기념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하루 한 편 운항하고 있는 인천~뉴욕 노선에 11월 24일부터 최신예 항공기 A350을 추가 투입해 매일 2회씩 운항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모션은 증편 항공편명인 OZ224를 기념해 '42만 원대'에 총 224매의 항공권을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뉴욕행 왕복 특가항공권을 14개 국내 주요 여행사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달 16~20일 판매할 예정이다.

프로모션 항공권 적용 대상은 11월 24일에서 12월 7일까지 출발하는 인천~뉴욕 증편 항공편(OZ224)으로 한정되며, 돌아오는 항공편은 오전편(OZ221) 또는 오후편(OZ223)으로 선택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뉴욕 증편의 핵심은 일과 후 바로 인천공항에서 뉴욕으로 출발할 수 있는 야간 스케줄을 편성해 고객들의 스케줄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한진칼 2대 주주' KCGI 유튜브 개설

강성부 "경영권 행사 생각 없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강성부〈사진〉 대표가 직접 여러 의혹을 해명하는 한편, 대한항공을 겨냥한 메시지도 함께 담아 관심이 쏠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칼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

언론 노출을 자제해온 강성부 대표가 인터뷰 방식으로 출연했으며 △채널 소개 △KCGI의 배후는? △KCGI가 기대하는 한진그룹이라는 제목의 영상 3개가 올라와 있다.

강 대표는 여러 의혹에 대해 "오해가 심하다 보니 가짜뉴스나 억측 등 억울한 부분이 많아 이제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았다"며 채널 개설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우리가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등은 주장할 수 있겠지만 경영권 찬탈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항간의 경영권 확보 견해를 반박했다.

출자자(LP)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LP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의무도 없고 금융감독원에는 (LP를) 보고하고 있다"며 "LP는 대부분 LK투자파트너스 시절 요진건설에 투자할 때부터 믿고 투자해주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먹튀'라 불리는 단기 투기자본 의혹에 대해서는 "메인 펀드는 10년이 넘는 펀드"라며 "회사에 투자해 펀더멘털 개선이 보이는 것 없이 어떻게 엑시트(회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진그룹을 겨냥한 메시지도 담았다. 강 대표는 "글로벌 항공사 부채비율이 평균 200% 안쪽인데 대한항공은 최근 부채비율이 많이 올라 반기말 기준 900%에 가깝다"며 "그 원인은 대부분 쓸데없는 호텔 부지 등 유휴자산을 과도하게 가진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텔이나 부동산 쪽 과도한 자산은 덜어내고 운송 전문 기업집단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작년 7월 설립된 KCGI는 같은 해 11월 한진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사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해 단숨에 2대 주주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이후 한진 측에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주총에서 주주제안 상정을 시도하는 등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왔다. 그 사이 한진칼 지분율도 15.98%까지 늘렸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세상에 하나뿐인

Only One

투자 레시피

* 한국경제 2018 BEST 증권사·리서치 대상, 매일경제 2018 BEST 리서치 1위(2016년 부터 3년 연속)

업계 최고 수준의 리서치센터가
엄선한 추천종목을 원큐에!

BEST 리서치센터와 함께 투자하자!

하나OnlyOne리서치랩

- BEST 리서치센터의 BEST 포트폴리오
- 국내 · 해외주식의 밸런스 있는 투자
- 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탄력적 투자

랩수수료 | 선취형 : 선취 1.0%, 후취 연 1.3%(분기별 수취) / 기본형 : 후취 연 2.0%(분기별 수취)
성과형 : 후취 연1.0%(분기별 수취), 성과수수료 기준수익률 초과분의 20%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 가능 ※ 랩어카운트는 고객계좌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계좌별 운용실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3255호(2019.08.19~2020.08.18) CC브랜드90809-84 m.hanaw.com | 1588-3111

하나금융투자

삼성 스마트폰 아메리카 대륙서 선전

중남미 점유율 43% 역대 최대
美 '고객 충성도' 아이폰 제쳐
갤폴드 열풍 타고 뜨거운 관심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선전하고 있다. 중남미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소비자 충성도 조사에서 아이폰을 제치기도 했다.

15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남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36.6%)보다 6.2%포인트 높은 42.8%의 점유율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선전에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와 삼성 스마트폰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화웨이는 2분기 초반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지만, 5월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자 점유율 12.2%를 기록하며 3위로 밀려났다.

파브 샤르마(Parv Sharma) 카운터포인트 애널리스트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화웨이 제재로 많은 반사이익을 봤다"며 "최근 중남미 지역의 주요 시장에서 화웨이의 강한 공세에 부딪혔던 삼성전자는 이를 극복하고 선두자리를 공고히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J시리즈 가격 할인과 A시리즈 출시로 좋은 성과를 거뒀고,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마케팅·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하는 뛰어난 성적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시행된 '소비자 충성도' 조사에서 애플 아이폰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IT 전문 시장조사업체 브랜드키즈(Brand Keys)가 최근 발표한 '2019년 고객충성도 상위 100대 기업' 명단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3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1년 전 조사 때 애플에 뒤졌지만, 올해 역전에 성공했다. 애플은 지난해 조사에서 3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7위로 내려앉았다. 업계에서는 높은 소비자 충성도는 그만큼 제품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인 만큼 향후 호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브랜드키즈의 로버트 파시코프 대표는 보고서에서 "고객 충성도는 경영실적을 예고하는 지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선전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가 시장에서 받는 뜨거운 관심을 고려할 때 한층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폴드 5G 모델은 국내 판매가격이 200만 원을 넘지만 6일 출시 첫날 초기 물량이 모두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막한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9' 전시장에서도 갤럭시 폴드를 직접 체험하려는 관람객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삼성전자는 전담 직원을 붙여 기능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 추세에 따라 1만6000명에서 2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들이 행사 기간 갤럭시 폴드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수축기에 들어선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범용 제품과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일단 승기를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수익성과 시장점유율의 황금분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삼성전자 갤럭시 팝업스토어에서 관람객이 삼성 스마트폰을 체험해보고 있다. 글렌데일/UPI연합뉴스

SKC에코, 페인트 대체 건축용 필름 출시

외벽 부착 20년 이상 내구성

SKC에코솔루션즈가 다음 달 페인트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필름을 국내에 새롭게 출시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C 자회사인 SKC에코솔루션즈는 최근 건축용 불소(PVDF) 필름의 고객사 인증을 마쳤다. 현재는 다음 달 제품 출시를 목표로 생산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PVDF 필름은 SKC가 동국제강과 3년에 걸친 공동 개발을 통해 만들어졌다. 태양광 패널을 보호하는 태양광용 PVDF 기술을 발전시켜 만든 제품으로, 현재까지는 중국에만 일부 판매되고 있다.

PVDF는 기존에 페인트를 칠하는 대신, 건물 외벽에 인쇄를 통해 필름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비교하면 외부 디자인을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고, 오염도 덜하다. 항균과 방염성이 높으며, 20년 이상의 내구성까지 갖췄다. 특히 이 제품은 친환경적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 제품은 페인트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C에코솔루션즈의 이 같은 친환경 제품 사업 강화는 모회사인 SKC의 최근 방향성과도 궤를 같이한다. SKC는 2009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생분해 필름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태양광 발전 패널 성능을 높이는 필름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 소재 개발에 앞장서 왔다. 7월에는 바스프, 다우케미칼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플라스틱쓰레기제거연합(AEPW: Alliance to End Plastic Waste)'에 국내 기업 최초로 가입했다. 현재 반도체, 모빌리티와 함께 친환경 소재를 중심으로 한 사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SKC에코솔루션즈는 PVDF를 비롯해 다양한 친환경 소재 사업을 강화해 2021년에는 매출 3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현재 SKC에코솔루션즈의 연간 매출액은 750억 원 수준이다.

변효선 기자 hsbyun@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SK이노 3년 연속 '지속가능경영' 상위 10% 기업

다우존스 'DJSI 월드' 선정
LG전자, 가전 분야 최우수

SK이노베이션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 결과 3년 연속 'DJSI 월드(World) 기업'으로 선정됐다.

DJSI는 글로벌 금융정보 제공 기관인 미국 S&P다우존스와 지속가능경영 평가 전문기관인 스위스 로베코샘이 매년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종합 평가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로, 평가 대상 기업 중 상위 10%만이 DJSI 월드 기업에 선정된다.

SK이노베이션은 15일 평가 기업 중 유일하게 DJSI 월드와 DJSI 아시아 퍼시픽, DJSI 코리아 지수에 3년 연속 모두 편입됐다고 밝혔다. 올해 DJSI 평가는 총 61개 산업 분야에 속한 전 세계 2526개 기업(유동자산 시가총액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내에서는 20개 기업이 선정됐다.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는 전 세계 21개 기업이 평가에 참여했다.

한편 LG전자는 DJSI 평가에서 6년 연속 '가전·여가용품 분야' 글로벌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또 현대자동차는 장기적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비재무적 가치의 재무적 영향도를 측정하기 위해 올해 DJSI에 처음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ugene@

업종 규제 풀었어도… 여전히 높은 '벤처 문턱'

새롭게 허용된 업종 중 '벤처 확인 기업' 9곳 불과
부동산 분야에만 집중… 미용업 등 다른 업종은 '0'
"국회 계류 중인 '벤처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통해 액셀러레이터·크라우드펀딩 투자받은 곳도 기회 줘야"

벤처기업 업종 규제가 풀린 뒤 새롭게 허용된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업체 수가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액셀러레이터나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를 받은 경우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정부는 임대업, 미용업 등 18개 업종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3개 업종 중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장, 유흥성·사행성 등 관련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당시 규제가 풀리면서 중기부와 벤처 업계에서는 공유오피스 업체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기대가 컸다. 중기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각종 세제 혜택, 코스닥 상장 시 요건 완화, 정책자금 지원 우대, 특허 우선 심사 등 지원이 뒤따른다. 각종 정부 사업에서 가점도 부여받는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년 3개월 동안 새롭게 허용된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업체는 9곳이다. 대부분 부동산 관련 업종이다.

2017년, 2018년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부동산업 창업은 매우 활발했다.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부동산업 창업은 14만4404개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2018년 상반기에는 18만7829개로 전년 대비 30.1% 늘었다. 부동산업 분류는 크게 부동산 임대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뉜다. 부동산 임대 공급업에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공급업이 포함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관리업,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창업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다만, 규제를 풀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정부 입법안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중기부 관계자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액셀러레이터나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받은 업체도 벤처 확인을 받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면 네 가지 유형 중 한 가지에 속해야 한다. 첫 번째인 벤처투자기업 유형으로는 VC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고, 투자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인 연구개발기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기술보증기금(기보)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네 번째, 예비 벤처기업 유형으로는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이며 기술·사업 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하다고 평가받아야 한다.

14일 기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업체 수는 누적 3만6917곳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새롭게 허용된 업종 중 벤처인증 현황

업종명	벤처인증 신청 업종 수	벤처인증 성공 업종 수
여관업	0	0
그 외 기타 숙박업	1	1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0	0
주거용 건물 임대업	3	3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2	2
기타 부동산 임대업	2	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	1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0	0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2	1
골프장 운영업	0	0
노래연습장 운영업	0	0
이용업	0	0
두발미용업	2	0
피부미용업	0	0
기타 미용업	1	0
욕탕업	0	0
마사지업	0	0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0	0
계	14	9

벤처 업종별 신규 인증 업체

그 외 기타 숙박업		
회사명	주생산품	벤처기업 확인일
세렌디피아	숙박, 여행서비스	2019/7/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원패밀리	셰어하우스	2018/6/21
한국청년주택	주택임대	2018/10/11
하품리빙랩	공유하우스	2019/1/24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패스트파이브	공유사무실 임대사업	2018/6/21
송현	공유사무실 임대사업	2019/9/5

기타 부동산 임대업		
미스터홈즈	부동산개발 및 임대	2019/8/22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영앤룸	공간	2019/3/14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식회사앞뜰 컴퍼니	도시재생관련창업 지원시설	2018/12/27

LG U+-카카오모빌리티 '5G 모빌리티' 동맹

'스마트교통 서비스' 개발 협력
공동 TF 구성…시너지 극대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5G 기반 미래 스마트 교통 분야 서비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5일 양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서명식이 진행됐고, 자율주행 환경 근간 구축과 새로운 스마트 교통 솔루션 공동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MOU에 따라 이달 중 미래 스마트 교통 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LG유플러스의 디바이스, 통신, 유지보수 등이 융합된 서비스·인프라 개발 및 상호 기술 지원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용자향 서비스 플랫폼 개발, 정보 제공 및 기술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류긍선(오른쪽) 카카오모빌리티 공동대표와 최순종 LG유플러스 기업기반사업그룹장 상무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두 회사는 2019년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울산·광주와 같이 시범 실증 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기 위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 발굴, 차별적 제반 설비 공급 등의 사업 추진 사항을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에 기반한 교통 공유 플랫폼 및 5G 기반 교통 솔루션 구현을 위한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LG유플러스의 5G 네트워크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 플랫폼 등을 근간으로 하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양사는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해 스마트시티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공동대표는 "카카오 T 및 카카오내비 등 자사의 플랫폼과 LG유플러스의 5G 네트워크를 접목해 한층 고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순종 LG유플러스 기업기반사업그룹장 상무는 "모빌리티 산업의 선두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당사의 차별적 5G 네트워크 및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시장 대응을 위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C-ITS, 스마트시티와 같은 대규모 B2B 사업에서 양사의 질적 성장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근 기자 nova@

KT 5G 스카이십, 'ITU 어워즈' 글로벌 산업상

세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 '의미있는 연결 솔루션'부문 수상

KT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ITU 텔레콤 월드 어워즈 2019(ITU Telecom World Awards 2019)'에서 글로벌 산업상 '의미 있는 연결 솔루션' 부문에서 수상했다.

15일 KT에 따르면 'ITU 텔레콤 월드 어워즈'는 유엔(UN) 산하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전시회이자 글로벌 포럼이다. 매년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가장 유망하고 혁신적 솔루션에 글로벌 산업상을 수여하고 있다.

KT가 12일 받은 '의미 있는 연결 솔루션'은 올해 신설된 부문이다. KT의 '5G 스카이십'은 세계 최초로 5G 통신과 무인비행선 및 드론의 장점을 결합한 5G 기반 임무 수행 플랫폼이다.

KT는 2017년 바다에 서식하는 고래를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스카이십' 최초로 개발을 시작했다. 그 뒤 5G 통신을 적용해 재난 현장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5G 스카이십'으로 발전시켰다.

'5G 스카이십'은 헬륨가스 기반의 기체로 기존 드론의 단점인 비행거리·비행시간·탑재무게 등의 제한을 극복해 다양한 환경에서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5G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고화질 영상 전송도 할 수 있다.

지영근(가운데) KT 네트워크부문 상무가 'ITU 텔레콤 월드 어워즈 2019'에서 글로벌 산업상 '의미 있는 연결 솔루션' 부문 수상 후 자오 허우린(오른쪽) ITU 사무총장, 이재섭 ITU 총국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현재 '5G 스카이십'은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훈련 및 현장 감시에 투입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을지태극연습에 참여해 원전 사고 대응 훈련을 수행했다. 또, 뮤직 페스티벌이나 스포츠 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도 화재 감시, 교통안전 관제를 펼쳤다. 김범근 기자 nova@

SKT·에릭슨, 5G 장비만 이용한 데이터 통신 성공

'5G SA' 내년 상반기 상용화
기존방식 대비 접속 2배 빨라

SK텔레콤(SKT)이 에릭슨과 함께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최초로 '5G SA(Standalone·5G 단독 규격)' 단말, 기지국, 코어 장비 등 순수한 5G 시스템만을 이용한 '5G SA' 데이터 통신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SKT는 이번 테스트 성공에 관해 "7월 국내 최초로 '5G SA' 패킷 교환기와 코어 장비를 연동한 것을 넘어 단말부터 기지국, 코어 장비까지 통신 과정 전체를 5G 상용장비로만 구현한 '순(純) 5G' 통신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SKT는 'SA' 방식 5G 통신을 내년 상반기 중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보인 '5G SA'의 특징은 '5G NSA' 대비 통신 접속 시간이 2배 이상 빨라진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LTE 망을 통해 통신에 접속하지만 'SA'는 오롯이 5G 시스템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고객들은 기존 대비 빠른 데이터 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5G NSA' 대비 데이터 처리 효율성도 3배 높아진다. 대규모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AR·VR·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등 차세대 서비스에 최적의 통신 성능도 제공할 수 있다.

박진효 SKT ICT기술센터장은 "이번 '5G SA' 데이터 통신 성공은 진정한 5G 시대를 여는 초석이며, 전체 산업군의 혁신과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SKT는 AR·VR, 모바일 클라우드 게임, 자율주행 등 다양한 5G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5G 시대를 더욱 가까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칸 셀벨 에릭슨엘지 CEO는 "5G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는 최상의 5G 기술로 고객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과기부·산하기관, 하루 13번 사이버 공격당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속·산하 기관들이 하루 평균 13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및 소속·산하 기관 사이버 공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이버 공격건수가 1만1108건에 달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각 2512건, 1791건, 1113건으로 줄어들다가 2018년엔 2456건, 올해 들어 8월 31일까지 3236건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 건수가 작년 기준 1095건으로 전년 대비 약 13배, '서비스 거부 공격' 건수는 올해 8월 31일 기준 134건으로 지난해보다 22배 폭증했다.

사이버 공격지는 국내가 2015년 2379건에서 지난해 386건으로 줄어든 반면, 중국발은 2015년 32건에서 지난해 912건으로, 28.5배 늘었다. 국내를 제외하면 미국, 유럽, 아시아, 기타 지역에서의 공격이 모두 늘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친환경 신소재 충전재〉

올겨울 패딩… 구스 대신 '티볼'

패션업계, 충전재 차별화에 중점
물세탁 가능한 '싱클라우드 에어'
태양광 받으면 발열 '솔라볼' 등
다양한 인공 충전재 패딩 선보여
구스 제품도 솜털 함량 높여 출시

겨울 신제품 출시에 들어간 패션업계가 이번 시즌에는 패딩의 충전재 함량률을 조정하거나 신소재 충전재를 도입하는 등 충전재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패션업계가 선보인 패딩 충전재의 최적 함량률은 '8:2'였다. 패딩은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솜털 사이 공기층이 필요한데 깃털을 섞어 솜털 사이에 공기층을 만든다. 이때 솜털과 깃털의 함량률을 봐야 하는데, 지난해 패션업계는 솜털과 깃털의 비율이 8:2를 최적으로 보고 이를 제품에 적용해 적극적으로 마케팅했다. 그러나 올해 일부 업체는 솜털의 비중을 좀 더 늘린 9:1을 최적의 비율로 제시하고 신제품에 적용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덕다운(오리털)'에서 고급화한 충전재인 '구스다운(거위털)'을 도입한 곳이 많았으나, 올해는 보온성을 높인 신소재 충전재를 통해 기능·가격 등 다양한 요소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신성통상의 SPA 브랜드 '탑텐'은 '2019 프리미엄 폴라리스 롱패딩'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거위 솜털과 깃털의 비중을 지난해 8:2에서 9:1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성통상 측은 "솜털 함량이 높을수록 가볍고, 복원력과 보온성이 높아지는데 이번 NEW 프리미엄 폴라리스 롱패딩은 솜털의 비중을 높였다"며 "자체 생산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솜털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가격 경쟁력을 갖춰 19만9000원에 선보인다"고 말했다.

오리털 충전재에서 나아가 거위털 충전재로 보온성을 높인 패션업계는 올해 신소재 충전재를 선보이며 보온성, 경량성,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신세계백화점이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와 손잡고 만든 '티볼 숏패딩'은 거위털이 아닌 인공 충전재 '티볼'을 사용했다. '신세계X노스페이스 티볼 숏패딩'은 인공 충전재를 사용한 만큼 평균 20만~30만 원대의 패딩 가격을 10만 원대로 낮춰 19만8000원에 선보인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이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와 손잡고 만든 '티볼 숏패딩'.

내놨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티볼을 활용해 가격을 낮추고, 친환경과 패션 트렌드 모두 충족했다"고 말했다.

이랜드의 SPA 브랜드 '스파오'는 싱클라우드 에어 충전재를 사용한 패딩 조끼 '패쪼'를 새롭게 출시했다. 싱클라우드 에어 충전재는 폴리에스터 기반의 화학섬유로 만들어져 오리 털이나 거위 털보다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스파오 측 관계자는 "싱클라우드 에어 충전재를 사용해 스파오의 패딩 조끼는 지난해 출시된 것보다 가볍고 보온성도 높다"며 "인공 충전재라 물세탁도 가능해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캐주얼 브랜드 '디자인 유나이티드'는 이번 겨울 시즌 신소재 충전재 '솔라볼'을 넣은 패딩 컬렉션을 출시할 계획이다. 솔라볼은 태양광을 받으면 발열 효과를 내는 인공 충전재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솔라볼은 기존 오리 털이나 거위 털 충전재보다 복원력이 뛰어나 세탁이 편리하고, 무게도 가벼우며 보온성이 우수하다"고 말했다. 디자인유나이티드의 솔라볼 패딩 컬렉션은 이달 말께 출시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 패딩은 이미 소비자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만큼 올해 새롭게 패딩을 출시하는 업체들은 디자인 차별화뿐 아니라 보온성, 경량성, 나아가 충전재 차별화를 꾀했다"며 "지난해 고전했던 겨울 장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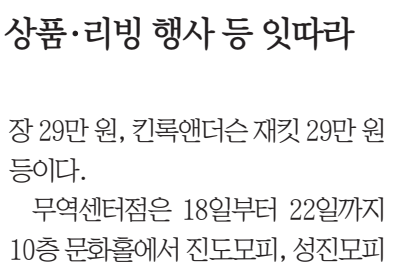
명절 끝나도 쇼핑은 계속된다

롯데백화점, '셀프 선물족' 위한 명품·안마의자 행사
현대百, 멘즈 아우터·모피대전 등 겨울상품 특가전
명절 증후군 해소·간절기 상품·리빙 행사 등 잇따라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유통업계가 명절 스트레소 해소를 위한 쇼핑 심리, 선선해지는 날씨에 간절기 상품 구매 수요, 가을 집단장을 준비하는 수요 등을 겨냥한 다양한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명절증후군 극복을 위해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셀프 선물' 트렌드에 맞춰 명품 행사를 준비했다.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에서는 19일까지 해외 명품 대전을 통해 '지방시 안티고나 스몰백'은 219만9000원, '버버리 빈티지 체크 배너 스몰백'은 159만9000원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인기 브랜드 안마의자 행사를 열고, 온열 마사지볼이 내장된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1160만 원에 판매한다. 또한 야외 활동하기 좋은 기간인 20~26일 '인기 스포츠 브랜드 균일가 대전'도 진행한다. 잠실점에서는 본격 골프 시즌을 맞아 20일부터 26일까지 '골프 박람회'를 열고 골프 의류는 최대 80%, 골프 용품은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연휴 직후 새로 시작되는 한 주는 평년 기온 이하의 선선한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롯데백화점 평촌점은 26일까지 '노스페이스 에코 플리스 재킷'을 15만9000원에, 잠실점은 26일까지 '몽벨제나 경량다운 재킷(남)'을 10만9000원에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겨울 상품 특가전'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 겨울 상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브랜드별 아우터 상품 물량을 지난해보다 10~20%가량 늘렸다"고 설명했다.

압구정본점은 16~19일 5층 대행사장에서 '해외패션 이월 상품전'을 열고, 블루마린·파세리코 등 해외패션 브랜드의 겨울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대표상품은 블루마린 코트 59만4000원, 페세리코 니트 15만 원 등이다. 판교점에서는 20일부터 22일까지 10층 토파즈홀에서 킨록앤더슨·듀퐁·올젠 등 남성 브랜드가 참여하는 '멘즈 아우터 대전'을 열고, 패딩·재킷 등 남성 아우터를 최초 판매가 대비 30~70% 할인 판매한다. 대표 상품은 킨록앤더슨 정장 29만 원, 킨록앤더슨 재킷 29만 원 등이다.

무역센터점은 18일부터 22일까지 10층 문화홀에서 진도모피, 성진모피 등 1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모피 대전'을 열어 최초 판매가 대비 20~70% 할인 판매한다.

갤러리아백화점 역시 명품관에서는 19일까지 이탈리아 피트니스 기구 브랜드 테크노짐 팝업 매장을 운영하고 수원점에서는 이 기간 남성 캐주얼 이월 상품을 선보인다. 대전 타임월드점에서는 19일까지 가을 침구 상품을 선보이고 19~21일 모피 행사를 연다.

가을을 맞아 집단장에 나서는 '홈족(Home族)'을 겨냥해 롯데백화점 본점 '엘림(ELIM)'에서는 28일까지 가을용 패딩솜 코튼키즈 이불을 각 7만 원에 선보인다. 노원점 '가보'에서는 19일까지 황토 흙 소파를 219만 원에, 청맥반석 침대는 199만 원에 판매한다.

남주현 기자 jooh@

새로워진 트레이더스 홍삼정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트레이더스 대표 상품 중 하나인 가성비 홍삼 '트레이더스 딜 6년근 홍삼정7.3(240g)'을 새롭게 리뉴얼해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2014년 론칭된 트레이더스 홍삼정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홍삼 선택 시 기준이 되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기존 1g당 5.7㎎에서 7.3㎎으로 약 28% 늘렸다. 공정관리 변화를 통해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28%나 높아졌지만 가격은 여전히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이마트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나간 자리 어쩌나

롯데호텔 월드점 지하 500평
잇단 적자에 지난달 말 문 닫아
비싼 임대료에 아직까지 공실로

롯데주류의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이 롯데호텔의 계륵으로 전락했다.

롯데주류의 맥주 홍보관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은 롯데호텔 월드점 지하 1층에서 2014년부터 영업해 왔으나 지난달 말로 문을 닫았다. 클라우드 비어스테이션은 주류 제조사가 직접 외식매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롯데GRS가 위탁운영해 왔다.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이 영업을 종료한 후 롯데호텔은 500평에 달하는 공간에 입점할 기업을 물색했으나 과도한 임대료 탓에 아직까지 입점 업체를 찾지 못한 상태다.

15일 롯데호텔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자로 영업을 종료한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에 마땅한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 공간에는 대형 서점이 입점 의사를 타진했으나 너무 비싼 임대료와 호텔과 서점이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막판에 입점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호텔은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외식 브랜드와도 접촉했으나 대부분이 고사했다. 외식 브랜드들이 입점을 꺼리는 이유는 높은 임대료와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운영 당시의 수익성 탓이다. 롯데호텔은 임대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입점 제안을 받은 기업들을 통해 드러난 임대료는 보증금 4억 원, 월 임대료 3300만 원 선이다.

그렇다고 롯데가 운영 중인 다른 외식 브랜드가 입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롯데주류는 6년 전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오픈 당시 인테리어 비용만 32억 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자 대비 실적은 좋지 않았다. 입점 제안을 받은 기업들은 클라우드비어스테이션이 매월 1500만 원 내외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입을 모은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롯데호텔이 공간을 나눠 임대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지만 소비가 부진한 시점에 선뜻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만한 외식 브랜드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며 "장기간 공실이 이어질 경우 롯데호텔이 속앓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홍대 초마짬뽕도 상수동 짜장면도… 집에서 간편하게

이마트, 밀키트 시장 확대 나서

이마트의 식품 브랜드 '피코크'가 밀키트 시장 넓히기에 나선다.

이마트는 15일 피코크 '고수의 맛집' 시리즈로 '맛이차이나' 짜장면 밀키트와 '초마짬뽕' 밀키트를 이마트 100여 개 점포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마트가 선보인 짜장·짬뽕 밀키트는 냉동 면을 쓰는 레토르트 제품과 달리 원조 맛집 고유의 쫄깃하고 탱탱한 면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생면'을 택했고, 전문 제조사 '면사랑'이 제조한 것이 특징이다.

피코크 '맛이차이나' 짜장면 밀키트는 1000g 2인분 분량에 가격은 8980원이다. 서울 상수동 짜장면 맛집 '맛이차이나'의 레시피를 그대로 밀키트에 담았다. 주재료는 생면 외에 양파, 주키니 호박, 돼지고기, 짜장소스 등이며 맛집 '맛이차이나'의 맛을 가정에서 가장 유사하게 낼 수 있도록 개발했다.

또 피코크 '초마짬뽕' 밀키트는 672g(2인분)에 9980원에 판매한다. 홍대 초마짬뽕 맛집 '초마'의 레시피를 그대로 담았고 라면을 끓이는 정도의 간편한 조리법으로 맛집 '초마'의 맛을 최대한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냉동 레토르트 상품이었던 '피코크 초마짬뽕' 간편식과 달리 이번 피코크 '초마짬뽕' 밀키트는 생면과 배추, 양배추, 주키니호박 등 생야채 등으로 구성했다.

이마트는 2017년 10월 '채소밥상'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밀키트 사업에 첫 주자로 뛰어들었다. 현재 이마트가 운영하는 밀키트 브랜드는 '피코크(11종)'를 비롯해 '저스트잇(채소밥상 포함 70여 종)', '어메이징' 시리즈(6종) 등이며, 품목은 총 80여 종에 이른다. 주요 상품은 피코크 서울요리원 밀푀유나베, 저스트잇 버섯된장찌개, 어메이징 부대찌개 등이다.

이마트는 향후 '피코크'를 비롯해 '저스트잇'과 '어메이징' 등 밀키트 상품을 2022년까지 총 150종 규모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박미선 기자 only@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희망영웅을 찾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숨은 영웅들을
신한이 응원합니다

[희망영웅 프로젝트]

신한금융그룹은 굿네이버스와 협력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운
영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ope.
Together.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AI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실물증권 역사 속으로… 오늘부터 '전자증권' 시대

종이 형태의 실물증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6일부터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날부터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한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전환된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실물(종이)증권을 보유한 경우 실물증권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실물증권을 가진 투자자는 이날부터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을 해야 한다.

1983년 덴마크 시작으로 OECD 36개국 중 33개국 도입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 처리
운용비 절감·사무일정 단축 등 직접효과 年 1800억 예상

전자증권제도는 1983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OECD 36개국 중 33개가 도입한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화 제도다. 한국도 2014년 금융위원회가 도입 추진단을 구성했고, 예탁결제원이 2017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실물관리 업무 축소에 따른 운용비용 절감과 주식사무 일정 단축에 따른 직접 효과는 연평균 1809억 원으로 예상되며, 5년간 누적효과는 약 9045억 원으로 산출된다. 특히 이 중 투자 효과의 비중이 6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새로운 수수료 체계 적용으로 연간 130억3000만 원도 기존 대비 절감된다.

이 밖에도 증권 사무의 전면 전자화는 증권 거래 편의성을 더욱 높일 전망이다.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실주 발행부터 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래 43일에서 20일로 대폭 감소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물증권 폐지에 따라 위변조 및 분실위험이 없어지고, 권리행사 제약 기간 단축에 따른 투자 편의성이 높아진다. 또 감독 당국은 실물증권을 이용한 조세회피 등 음성거래 및 증여 차단과 발행유통 정보에 대한 접근성·신속성이 제고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에도 제도 안정화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자증권 및 실물증권 병행 운영 등을 고려한 조직 체계 등을 정비하고, 전자증권 시스템의 안정적 수용을 위해 IT 인프라 처리 성능을 높이도록 노후화 장비를 교체할 계획이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갖춘 전자증권 시스템을 공개하기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했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하반기 투자 키워드 '핀테크·대체에너지·실버'

박스피가 지속되면서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테마주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주식시장에서는 핀테크와 대체에너지, 고령화 관련 업종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마땅한 상승 재료가 없는 만큼 테마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이란 분석이다.

원동은 삼성증권 연구원은 "테마주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산업이나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슷한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주제 또는 테마별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인기를 끈 테마주는 남북경협, 5G, 수소차 등으로 모두 연초 대비 주가가 크게 올랐다. 11일 종가 기준 오이솔루션(231.17%), 케이엠더블유(209.13%), 엠에스오토텍

상반기 경협·5G·수소차 강세
박스피 속 '테마주' 인기 여전
정부 신산업 정책 수혜 기대감

(166.50%), 쏠리드(82.77%), 일신석재(58.27%), 경농(44.44%), 동아지질(38.98%) 등이 대표적이다. 북·미 정상회담, 5G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 수소차 지원 정책 등 이슈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증시 부진으로 테마 장세는 세계적 추세다. 김수정 SK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올해 금융섹터 지수가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했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핀테크' 테마로 상승했다"며 "테마주의 상반기 수익률이 월등했던 만큼 중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기대되는 테마를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연말 테마는 △핀테크 △AI(인공지능) △대체에너지 △실버 등이다. 핀테크, 인공지능 등은 정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정돼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체에너지와 고령화의 경우 친환경·고령화 문제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산업이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바이오헬스, 수소경제, 시스템반도체 산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정책 발표가 예고되면 관련 업종의 주가가 상승했다"며 "다만 실제 정책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육성하려는 산업의 경우 정책이 원론적인 수준인 경우가 많고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만한 유인책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며 "이를 토대로 정부가 신산업 정책 발표를 예고할 때에는 매수하고, 발표 후에는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4분기 상장사 실적 기대감 커졌다

영업익 전망치 5.62% 늘어… 1년여 만에 반등 '청신호'

LG전자 320% 증가 예상

국내 증시 상장사의 4분기 이익 전망이 긍정적이다. 증권업계는 하락 추세에 놓여 있던 이익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사 219곳(증권사 3곳 이상 실적 추정치)의 4분기 연결 영업이익 전망치가 28조8670억 원(11일 집계 기준)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의 영업이익보다 5.62% 늘어난 수치다.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총계가 작년 4분기 이후 올해 3분기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년여 만에 반등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219개사 중 약 89%인 195개사가 영업이익 개선(흑자전환·적자축소 포함)을 할 것으로 보이며 영업이익 악화(적자전환 포함)가 예상된 곳은 24곳에 불과하다.

특히 100% 이상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상장사는 현대차(132.51%), LG전자(320.83%), 롯데케미칼(223.62%), KB금융(108.03%) 등이며 LG화학(75.66%), GS(40.82%), 하나금융지주(40.19%), SK텔레콤(39.47%), 기아차(31.34%), CJ(24.81%), 현대모비스(10.60%) 등도 두 자릿수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지주, 한화 등은 흑자 전환 예상 기업이다.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주요 상장사

기업명	영업이익 증가 예상치
LG전자	320.83%
롯데케미칼	223.62%
현대자동차	132.51%
KB금융	108.03%
LG화학	75.66%
GS	40.82%
하나금융지주	40.19%
SK텔레콤	39.47%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반도체 업황 둔화로 각각 34.21%, 88.23% 감소한 7조1056억 원, 521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분석됐다.

강봉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긍정적인 점은 기업 이익 전망치 하향 강도가 크게 완화된 것"이라며 "2018년 이후 20개월째 이익 전망치가 하향됐으나 최근 소폭 반등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등 지속 여부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지만, 긍정적인 측면"이라며 "업종별로 조선, 증권, 헬스케어, 유틸리티 등 일부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최근 상향 조정됐으며 반도체 이익 전망치 하향폭도 크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고종민 기자 kjm@

'부활 시동' 거는 동성화인텍 "취약한 재무, 걸림돌 될 수도"

동성화인텍이 LNG 수요 증가로 턴어라운드하는 가운데 시설 확장에 취약한 재무상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985년 설립된 동성화인텍은 1997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주력사업은 폴리우레탄(PU) 단열재사업 부문과 가스사업으로, 특히 PU 기반의 LNG 선박용 초저온 보냉재를 전문으로 생산한다.

전방산업인 조선 업황의 여파로 동성화인텍은 2017~2018년 2년 동안 실적이 부진했다. 매출은 직전 해인 2016년 3350억 원에서 다음 2년간은 2000억 원 안팎으로 줄었고 80억~200억 원대의 영업손실을 냈다. 여기에 외환 손실과 자산 손상 등이 더해져 100억~300억 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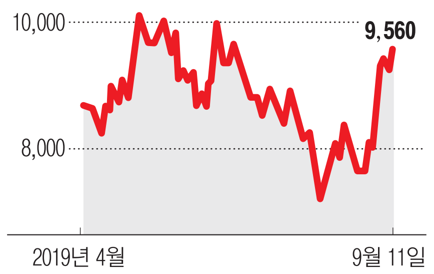
하지만 올 들어 상황은 급반전하고 있다. 조선소들의 LNG선 건조량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45척가량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모든 선종에서 LNG연료탱크를 탑재해야 하는 해운업계의 변화가 급격

글로벌 LNG선 수요 증가 수혜
국내 사업소 가동률 90% 넘어
시설 투자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
올 상반기 부채비율 200% 육박

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2분기 실적발표에서 전한 수주 잔량은 4308억 원으로 1년 전 1776억 원보다 2.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동성화인텍은 올해 매출 2467억 원, 영업이익 240억 원이 예상되고 있다. 2020~2021년에는 매출이 3000억 원 안팎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 규모는 300억~400억 원대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과 카타르 등 해외 다수 지역에서 초대형 LNG선 발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다 올해 반기 기준 동성화인텍 국내 사업소의 가동률이 90%를 넘어 증가하는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시설 투자에 앞서 높은 재무 레버리지는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동성화인텍 주가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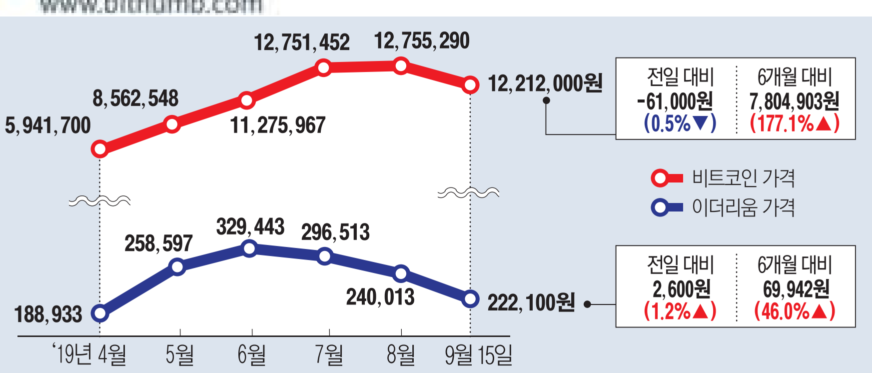
동성화인텍은 앞선 2년간의 순손실 여파로 자본총계가 줄면서 부채비율이 2016년 136.4%에서 2018년 177.4%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단기차입금 100억 원 조달 등으로 200%에 육박한다. 총차입부채에서 단기유동성을 뺀 순차입부채는 946억 원으로 자본총계 825억 원을 웃돈다.

회사 관계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력 충원을 통해 가동률은 상당 부분 낮출 수 있고 추가로 인력을 뽑고 있다"며 "아무래도 조선사업 자체가 사이클을 타다 보니 다운에서 업사이클로 넘어갈 때 레버리지가 커지곤 하는데, 수주받은 물량의 매출로 현금흐름이 나아지면 내년부터 갚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2019년 9월 15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60,500	500 (2.1%▼)
리플	311	- (-)
라이트코인	83,300	250 (0.3%▲)
대시	105,200	-3,700 (3.4%▼)
모네로	83,000	-50 (0.1%▼)
비트코인골드	13,380	50 (0.4%▲)
이더리움 클래식	7,440	40 (0.5%▲)
퀀텀	2,665	-18 (0.7%▼)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매물 부족에…서울 집값 계속 오를 듯”

올 하반기 부동산 전망

추석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정책·시장 이슈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가을철 이사 수요가 몰려 오히려 가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집값 하락 없을 듯”… 수도권은 서울 인접 지역 위주 상승 =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의 매매·전셋값은 모두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물량 부족이다. 매물이 부족한 시기에 수요는 넘쳐나고 있어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만큼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매수우위지수는 81.2로 전월(75.6)보다 상승했다. 이 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47.4에서 51.4로 올랐다. 아파트를 사려는 심리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연구소장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가길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가격은 안 빠지고, 매물도 갈수록 줄어드는 분위기여서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기 있는 입지는 물량이 줄어드니깐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가격이 오르다 보니깐 (전세를 택하려는) 전세 수요가 늘어 덩달아 전셋값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 114 리서치팀장도 “매물이 극히 제한적이라 매도 우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가격이 크게 빠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공급 부족 신호로 시장에 왜곡 전달되면서 무주택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매매시장은 전반적으로 강보합세를 탈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경기·인천지역은 가격 상승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접지역은 서울 동조화 현상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반면, 외곽지역은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상우 익스포텐셜 대표는 “경기도 고양·파주·안산·평택·시흥시 등 수도권 서쪽 지역은 매매·전셋값 약세를, 성남·용인·과천시 등 수도권 동쪽 지역은 매매·전셋값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약세 지역은 입주 물량이 많아 집값 하락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경기도권은 워낙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 여지가 크다”면서 “가격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3기 신도시 공급 확대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이후 이벤트 “당장 없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촉각 =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직후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당장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시기와 지역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당초 계획보다 시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덕례 실장은 “당장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는 없을 것 같다”며 “다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10월로 바꾸면서 적용 지역과 시점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우 대표도 “분양가 상한제 얘기도 미리 나와 이벤트가 별로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연내에 시행될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수요 위주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김학렬 소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실수요 위주로 돌아가는 현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과열된 청약시장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은진 팀장은 “가장 큰 변수는 분양가 상한제인데, 기존 아파트보다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다”며 “추가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청약시장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지희 기자 jhsseo@

올해 하반기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전망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김은진 부동산 114 리서치팀장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연구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	이상우 익스포텐셜 대표
서울	매매	약간 상승	강보합	상승	강보합	상승
	전세	보합	상승	상승	약간 상승	상승
수도권	매매	하락	서울 인접 지역 상승, 외곽 지역 하락	서울 인접 지역 상승, 외곽 지역 하락	강보합	과천 등 일부 지역 상승
	전세	약간 하락	서울 인접 지역 상승, 외곽 지역 하락	서울 인접 지역 상승, 외곽 지역 하락	약간 상승	매매 상승 지역 따라 상승
주요 이벤트		– 당장 이벤트 없어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 주목	– 분양가 상한제 시행 – 청약 시장 과열	– 분양가 상한제 실수요 시장 영향 미미 – 교통망, 일자리 호재	–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여부 주목	– 특별한 이벤트 없어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부 촉각

※ 전문가 가나다 순

수도권, 서울 인접지역 중심 상승

인기 있는 지역 상승 기대감 여전

매물 갈수록 줄어 무주택자 불안

전세수요 늘어 전셋값도 오름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촉각

상한제 시행 시기·지역 불투명

연내 시행 여부에 관심 쏠려

로또 단지에 청약수요 몰릴 듯

대출 죄자…서울 주택 증여 줄었다

올 1~7월 1.1만건으로 작년보다 25%나 감소

부담부 증여 어려워…상반기 집값 하락도 영향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과 서울 외 지역 간 주택 증여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과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주택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만1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063건) 대비 25.4%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가 총 6만3665건으로 작년 동기(6만4238건)와 비교했을 때 1.8%만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서울의 감소폭이 훨씬 크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4구의 증여 감소가 두드러졌다. 강남구의 증여 건수는 작년(1~7월)에 1762건이었으나 올해는 959건으로 절반 가까이(45.6%) 줄었다. 송파구는 지난해 1380건에서 올해 734건으로 46.8% 줄어 강남구보다도 감소폭이 더 컸다. 서초구는 지난해 1594건에서 올해 957건으로 39.9%, 강동구는 지난해 1032건에서 올해 665건으로 35.6% 각각 감소했다.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영등포구로 나타났다. 영등포구의 지난해 주택 증여는 1115건이었으나 올해는 288건에 불과했다. 이 밖에 금천(50%↓)·동작(31.5%↓)·광진구(28.3%↓) 등도 서울 평균 이상으로 증여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이외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증여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16.4%, 인천은 26.0% 증가했고, ‘대대광’을 불리는 대구·대전·광주 역시 순서대로 10.7%, 18.2%, 39.9% 늘었다.

서울의 주택 증여가 감소한 것은 대출 규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등 부동산 증여는 작년까지 3년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지역에서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작년에 분양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자이’ 아파트처럼 분양가가 낮아 시세 차익이 큰 신규 분양아파트에서는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당첨자의 이름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무더기 증여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의 대출 강화로 자녀 등에게 전세금이나 주식담보대출을 끼고 소유권을 넘기는 ‘부담부 증여’가 어려워져 증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조치로 절세 목적의 증여는 계속되고 있지만 작년 집값 과열기와 비교해 신규 취득을 동반한 증여는 감소하고 있다.

9·13 대책 등 정부 규제로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집값이 하락하며 예년에 비해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영향도 크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금주의 분양캘린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전국의 분양시장은 한가한 분위기다.

15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청약 물량은 전국에서 4곳, 215가구로 집계됐다. 16일 제주도 제주시 삼양2동에 ‘삼화다온펠리스’(63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이어 18일에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에서 ‘옹진백령 국민임대 50가구’, ‘옹진백령 영구임대 30가구’, ‘옹진백령 공공실버영구임대 72가구’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총 5곳이 개관한다. 모두 20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라클래시’의 견본주택이 문을 연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들어서는 ‘건대입구역 자이엘라(오피스텔)’ 견본주택도 이날 개관한다.

당첨자 계약 단지는 17곳이다. 16일에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인천 센트럴시티 그랑베르 △계룡대실 4블록(국민임대·영구임대) △대구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주상복합) △여수 웅천 사랑으로 부영 6차·7차(공공임대) 등 7곳에서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17일에 △덕수궁 디팰리스(오피스텔) △e편한세상 김포 로얄 하임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1·2단지 △울산송정 A2블록(국민임대) △고흥남계(국민임대) 등 7곳에서 당첨자 계약이 있다.

18일에는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의정부 고산 S2-2블록(국민임대) △광주 문화전당역 오펠리움(오피스텔) 등 3곳에서 당첨자 계약을 실시한다.

청약접수단지 (4곳, 215가구)

날짜	단 지	위 치	총 가구수	일반(임대)	전용면적(㎡)
9월 16일(월)	삼화다온펠리스	제주도 제주시 삼양2동 2142-1	63	63	51~84
9월 18일(수)	옹진백령(국민임대)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948-3	50	(50)	26~43
	옹진백령(영구임대)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948-3	30	(30)	26
	옹진백령(공공실버영구임대)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959-1	72	(72)	26

※ 일반(임대) 중 괄호속 가구수는 임대 가구수

모델하우스 오픈 (5곳)

오픈일	단 지	위 치	총 가구수	일반(임대)	전용면적(㎡)
9월 20일(금)	래미안 라클래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679	112	71~84
	건대입구역 자이엘라(오피스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2	315	269	18~84
	대곡역 두산위브(주상복합)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	643	259	34~84
	대곡역 두산위브(오피스텔)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	48	48	38~47
	율량 금호어울림 센트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율량사천구역 주택재건축	748	451	59~84

※ 일반(임대) 중 괄호속 가구수는 임대 가구수 ※자료:닥터아파트

서울 아파트값 11주 연속 오름세

서울 아파트값이 11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예고에도 가격 오름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일 기준 주간 서울 아파트값(매매가격지수)은 전주 대비 0.03% 올랐다. 강남4구(동남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3%로 오름폭을 확대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0.04%)와 강남구(0.03%), 송파구(0.03%) 모두 지난주보다 0.01%포인트씩 상승폭이 커졌다. 강동구도 0.0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는 지난달 말 나왔던 18억 원대 급매물이 사라지고 현재 19억~19억5000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으로 하락했던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신축 아파트값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비강남권 가운데 성동구와 강북구는 아파트값이 0.05% 올라 강남권보다 상승폭이 컸다. 양천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에서 0.02%로 상승 전환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자율주행 배달로봇’ 내달 선보여

서울시, 혁신기술 2건 실증 돌입
상암 테스트베드 권역 시범 운영
IoT 기반 지하수 오염 조사도

10월부터 상암동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권역에서 택배, 음식배달을 하는 ‘배달로봇’을 만나볼 수 있다. 또 녹사평역 등 서울 시내 주요 지하수 오염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혁신 기술 제안 온라인 플랫폼인 신기술 접수소를 통해 접수된 혁신 기술 134건 중 최종 심사를 통과한 실증기업 2개를 선정하고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주행 도로, 지하수 오염지역에서 최장 1년간 본격적인 실증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배달로봇’은 지정된 경로를 따라 자율 주행해 물류를 이송하는 기술로 상암동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권역에서 실증이 진행된다. 택배, 음식배달, 조업차량 물류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투입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수질관리 시스템’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지하수 수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술로 녹사평역 등 서울 시내 주요 지하수 오염지역을 대상으로 실증에 투입된다.

현재 2018년 혁신 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선정된 12개 기업이 서울의료원, 지하철, 도로 등에서 실증 중이다. 서울시는 11월까지 실증을 완료한 후 성능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입해 1000개 기업에 실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100억 원을 투입해 50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56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분야 19건, 헬스케어 분야 13건, 자율주행 및 전기차 분야 9건, 핀테크 분야 6건, 스마트팜 등 기타 분야 31건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기술들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수요처와 세부사항을 조율해 실증 계획을 수립한 후 9월 말 협약을 체결하고 최장 1년간 현장 실증에 들어간다.

김진희 기자 jh6945@

검찰청 앞, 꽃과 수갑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검찰을 응원하는 문구와 함께 꽃과 수갑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영일만항 입찰 담합’ SK건설, 과징금 줄어들 듯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위 과징금 산정 잘못됐다” 판결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담합으로 SK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이 전부 취소됐다.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SK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17억 23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SK건설이 공정위에 내야 할 과징금 액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SK건설은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 공사 입찰 과정에서 저가 투찰 경쟁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과 사전에 투찰 가격을 정하기로 모의했다. 각 회사 실무 담당자들은 입찰 4~5일 전에 모여 공사 추정 금액 대비 94.5% 정도로 추첨을 통해 각각 투찰률과 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고, 2011년 6월 SK건설 컨소시엄(10개사)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조달청은 SK건설 컨소시엄 중 항도엔지니어링의 당시 대표이사가 사임한 사실을 변경·등록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 통보를 하고 대림산업 컨소시엄(7개사)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SK건설은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SK건설 컨소시엄과 대림산업 컨소시엄은 각각 7:3 지분율로 구성된 새로운 컨소시엄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공정위는 SK건설에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때 과징금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사 계약금액 1007억3000만 원(관련 매출액) ×10%(부과 기준율)로 산정하고 지분율 감소 등의 이유로 조정 후 최종 17억 2300만 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이에 SK건설은 과징금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된 관련 매출액을 공사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상고심은 원심이 입찰 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 기준인 계약 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에서 관급자재 구매비 및 폐기물 처리비는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의 입찰 담합 사건에서 평균 부과 기준율이 7%인 것에 비해 SK건설에 대해서만 10%를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김종용 기자 deep@

수천억대 다단계 사모투자 사기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대법 “3만명 피해, 죄질 나빠”

미인가 투자업체를 개설해 3만 명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사장 범모 씨 등 임직원 7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6년이 확정됐다.

이 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사모투자 전문기업인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7039억 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다단계 형식의 영업조직을 만들어 고수익을 미끼로 유치한 투자금을 통합 운영하면서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등 투자자들을 수년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수익 발생을 가장한 후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였다”면서 “확정수익 추구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유사수신 행위 처벌을 피하기도 하는 등 사기 범행으로 피해액이 1800억 원에 이른다”며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은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 사기 범죄의 기본 양형은 8~13년인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한다”며 1심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9월호 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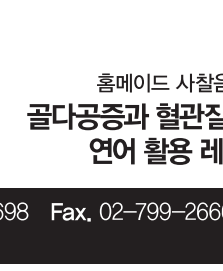
COVER STORY 피로, 굿바이

PART1. 뇌 휴식법 – 도시인의 피로는 몸이 아니라 뇌에서 온다
PART2. 신체적으로 피곤한 질병 14가지 – 가끔은 피곤을 친구로 삼아도 괜찮다!
PART3. 장(腸) 건강 프로젝트 – 활력 UP! 만성피로 DOWN!
PART4. 노화 가장 빠른 눈, 피곤함에 더 예민 – 뻑뻑한 눈, 촉촉하고 건강한 눈으로
PART5. 발 피로의 원인 – 발, 이럴 때 피로하다
PART6. 백세 건강을 위한 ‘행복호르몬’ – 슬기로운 피로 컨트롤러가 되자
PART7. 피로 과잉의 계절 – 명절 피로 날려주는 한방!(韓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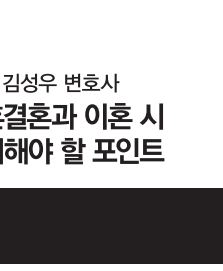
더불어 숲
꽃빛 번져
천지가 붉다상이라면?

귀촌
귀농으로 몸 건지고 정신 닦고
그는 망가진 몸을 고치기 위해 귀농했다. 죽을 길에서 벗어나 살길을 찾기 위해 산골에 들어왔다. 그 외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 결과는?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서리 맞은 호박잎처럼 시들어가던 그의 구슬픈 신체가 완연히 회생했으니. 산골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아름답고 기묘한 지구별과 이미 작별했을 거란다. 현명한 귀농이었다는 거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정도사’라 부른다. 이 사람, 정경교(62)씨의 삶에는 색다른 게 있다. 누가 뭐래도 제멋대로 산다.

선라보가 만난 사람


아무개의 인생 좌표는 4차원 지도 속에 있다
국민대 김한승 교수

달항아리로 보듬는 우리 사는 이야기들
백자 달항아리 화폭에 담는 최영욱 화가


윷판에 두 번째 인생을 던졌습니다
윷놀이연구소 조광휘 소장

타박타박 산책 계곡 건너고 솔숲 지나 찾아가는 호젓한 ‘닭실마을’
어느 해인가 추석 즈음 닭실마을에 간 적이 있다. 푸른 논 너머로 기와집들이 보였다. 기와지붕 뒤로는 나지막한 산이 봉긋 솟았다. 마을 앞에는 계곡이 흘렀다. 풍수지리를 몰라도 이곳이 명당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마을 아낙네들은 부녀회관에 모여 추석 한과를 만드느라 분주했다. 한 할머니가 손에 쥐여준 한과를 맛봤다. 500년 전통을 이어온 닭실한과였다. 그 뒤로 이맘때면 닭실마을이 생각난다.

고고가게 대구편
‘고고’는 오래된, 고상한, 뛰어난 등의 의미로 쓰인다. 그 수식어에 걸맞은 맛집, 이름하야 ‘고고가게’를 찾아가본다. 지하철 인근으로만 선별해 찾기도 쉬우니, 어서 고고(go-go)를 외치자!

홈메이드 사찰음식+
골다공증과 혈관질환에 좋은 연어 활용 레시피

김성우 변호사
황혼결혼과 이혼 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韓대표 모바일 게임 기업… 전세계 '엄지족' 홀렸다

게임쏙쏙 ⑳ 컴투스 com2us

국내 첫 모바일 게임 개발… 히트작 잇따라

국내 모바일 게임 개척자

타이쿤 장르 원조 '붕어빵타이쿤' '프로야구' '골프스타' 등 큰 사랑

2007년 코스닥 입성 성장 가속

1998년 설립된 컴투스는 이듬해인 1999년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에서 모바일 게임을 시작한 첫 번째 기업이었다.

2001년 선을 보인 '붕어빵타이쿤'은 출시 이후 큰 사랑을 받으며 시장에서 컴투스의 입지를 다지는 데 기여했다. 이후 2002년 출시한 후속작 '붕어빵타이쿤2' 역시 히트를 치며 타이쿤 장르의 원조 게임으로 자리 잡았다.

피처폰 시절 컴투스의 가장 대표작은 2005년 발매한 '미니게임천국'이다. 미니게임천국은 출시 직후 빠르게 이용자 수가 증가하며, 대한민국에 미니게임 열풍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화제가 됐다.

컴투스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선보인 '슈퍼액션히어로', '액션퍼즐패밀리' 시리즈 등을 통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다. 이 게임들은 모두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이로 인해 컴투스는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 선두 자리를 확고히 다진다. 결국 컴투스는 2007년 코스닥에 입성하며 한층 성장해 나간다.

컴투스는 기존 피처폰 시절부터 사랑받던 '컴투스프로야구'에 더해 2009년 '골프스타'를 출시하며 모바일 스포츠 게임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0년 '슬라이스잇'과 2011년 '타이니팜'이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고, 2014년 '낚시의신'까지 라인업에 추가되며, 캐주얼 게임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보해 나갔다.

'서머너즈 워' 누적매출 1조·1억 다운로드 돌파

글로벌 게임사로 발돋움

해외 시장서 전체 매출 80% 이상

모바일 e스포츠 대회 'SWC' 개최

야구 등 스포츠 게임 라인업 확대

2010년에 들어서며 컴투스는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모바일 게임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컴투스가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2014년 첫선을 보인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가 중심에 있다.

글로벌 히트작 '서머너즈 워'는 출시 4개월여 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첫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선정한 올해의 최고 게임에 이름을 올렸다.

'서머너즈 워'는 모바일 게임으로 매출 1조 원 달성,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1억 건 돌파 등 한국게임사에 획을 긋는 굵직한 기록들을 세우며, 출시 5주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서머너즈 워'의 글로벌 영향력에 힘입어, 컴투스는 지난 5년여간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의 성공을 토대로 2017년부터 모바일 e스포츠 대회인 'SWC(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도 개최했다. SWC는 매년 유럽컵·아시아퍼시픽컵·아메리카컵 등 대륙별로 나눠 예·본선을 진행하고 지역별 대표를 선출, 월드 결선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한다. SWC는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이용자가 참가하고, 월드 결선 현장에도 수천 여 명의 관객들이 모이는 글로벌 대표 e스포츠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 외에도 기존의 스포츠 및 캐주얼 게임 장르의 다양한 IP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2002년 첫선을 보인 인기 모바일 야구게임 '컴투스프로야구'는 지금까지 약 17년간 많은 이용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모바일 야구게임 분야에서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컴투스는 2013년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를 출시하고, 모바일 스포츠 게임 분야의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메이저리그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MLB 9이닝스', 'MLB 9이닝스 GM'를 연달아 선보였다.

스토리 게임·방치형 RPG로 비즈니스 다각화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좀비여고' 글로벌 서비스 준비 중

넷플릭스 '킹덤' IP게임 연내 출시

IP 활용 애니·소설 등 콘텐츠 확장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컴투스는 현재도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과 IP 확장을 통한 비즈니스 다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컴투스는 스토리 게임 분야의 강자인 '데이세븐'과 방치형 RPG 개발사 '노바코어(옛 마나코어, 노바팩토리)'를 인수했다. 스토리 및 방치형 게임 장르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장르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실제로 기존 노바코어의 대표 방치형 게임 타이틀인 '드래곤스카이'는 6월부터 컴투스를 통해 서비스되며, 이전보다 일평균 이용자 수가 약 55% 증가했다. 컴투스는 노바코어의 또 다른 방치형 RPG인 '좀비여고'를 연내 글로벌 서비스할 계획이다.

스토리 게임 분야에서는 기존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IP 등을 활용한 게임 타이틀을 개발에 나서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킹덤' IP 게임을 비롯해, 다양한 스토리 게임들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스토리 게임 플랫폼 '프리즘(가제)'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회사 데이세븐의 대표작인 '일진에게 찍혔을 때'를 웹드라마를 통해 소개하는 등 기존 IP를 활용한 콘텐츠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다.

특히 컴투스의 글로벌 히트작인 '서머너즈 워'의 IP를 활용한 '서머너즈 워 유니버스' 구축 작업도 한창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소설, 코믹스 등으로 확장 콘텐츠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컴투스 연혁

1998년		컴투스 설립
1999년		국내 최초 모바일 게임 서비스 시작
2000년		세계 최초 자바 게임 서비스 시작
2001년		'붕어빵타이쿤' 출시
2002년	10월	'한국프로야구(현 컴투스프로야구)' 출시
2004년	12월	딜로이트 '아시아 500대 고속성장 기업' 선정
2005년	8월	'미니게임천국' 출시
2006년	5월	'슈퍼액션히어로' 출시
2007년	4월	모바일 게임사 중 최초 코스닥 상장
	7월	'액션퍼즐패밀리' 출시
	8월	'이노티아 연대기' 출시
2009년	6월	'홈런배틀3D' 출시
	9월	포브스 아시아 200대 중소기업 선정
	12월	'골프스타' 출시
2010년	9월	'슬라이스잇' 출시
2011년	9월	'타이니팜' 출시
2012년	3월	'컴투스프로야구2012' 출시
	11월	제7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3년	2월	'히어로즈워' 출시
	11월	'컴투스프로야구for매니저' 출시
2014년	3월	'낚시의신' 출시
	4월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출시
	6월	컴투스-게임빌 통합 게임 서비스 플랫폼 '하이브' 출범
2016년	1월	'원더택틱스' 출시
	3월	영국 포켓게이머 '글로벌 개발사 TOP5' 선정
	10월	'MLB 9 이닝스' 출시
2017년	3월	'서머너즈 워' 단일 모바일 게임 최초 글로벌 누적 매출 1조 원 돌파
2018년	3월	'체인스트라이크' 출시
2019년	2월	'서머너즈 워'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1억 돌파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 서구권 출시
	6월	'드래곤스카이' 서비스 이관 및 홍콩·마카오 출시
	8월	'버디크러시' 인도네시아 출시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yd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205g~ 44% 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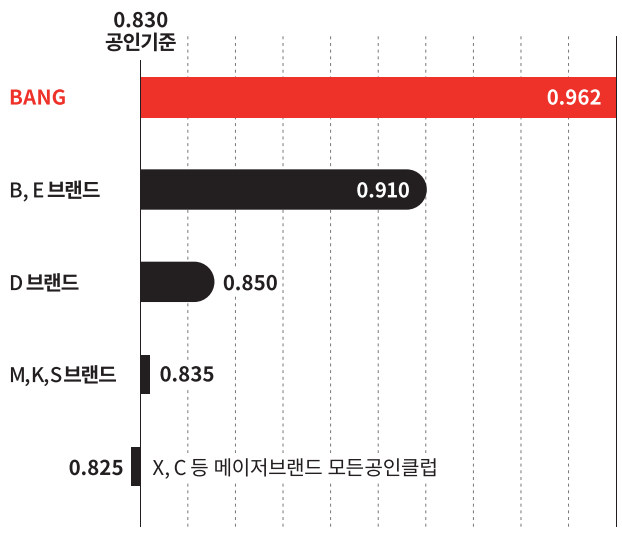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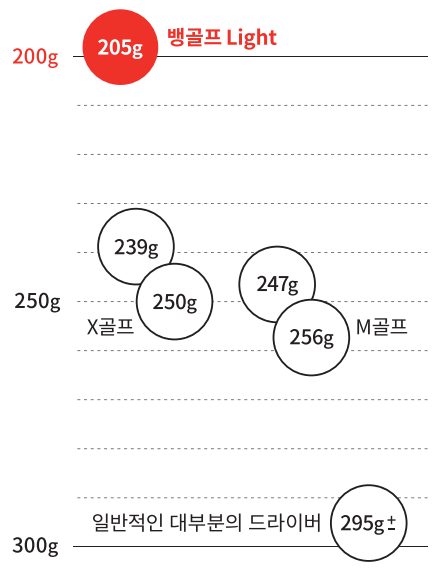
VVIP 고객님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 무게(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주)뱅골프코리아 | 대표전화 1544-807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 www.banggolf.co.kr

'대탈출' TV프로그램 참여…노영욱 룸즈에이 대표

"방탈출 테마마다 세계관, 그게 키포인트"

우후죽순 생기다 '정리 단계'
마니아 평가 좋은 곳은 '붐업'
전국 7개 지점마다 다른 테마
무조건 어렵게? 쉽고 재밌게!

노영욱 룸즈에이 대표가 10일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룸즈에이 홍대점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룸즈에이 매장을 확장하면서 조금씩 다른 테마를 운영한다며 "각각의 테마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제한 시간 내 플레이어들은 단서를 모아 밀실 안에서 탈출해야 한다. 밀실 안의 물건, 퍼즐, 단서들을 이용해 트릭을 푸는 핵심 힌트를 찾아야 한다. 의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지성, 감성, 체력, 상상력, 추리력 그리고 팀워크뿐이다. 방탈출의 원리이자, 노영욱(30) 대표가 운영하는 룸즈에이에서 방탈출 입문자에게 설명하는 규칙이다.

룸즈에이는 다수의 방탈출 테마를 제작한 RS 프로젝트와 또 다른 방탈출 브랜드 코마 이스케이프의 합작품이다. RS 프로젝트는 각종 드라마와 영화 속 추리 콘텐츠를 만들고 자문을 하기도 했는데, 방탈출을 콘셉트로 내세운 TV 프로그램 '대탈출' 장치를 만들어준 회사로 알려져 있다. 노 대표는 룸즈에이 대표이자 RS 프로젝트 대표를 맡고 있다. 룸즈에이 지점은 전국에 7곳이 있다. 지점마다 조금씩 테마를 다르게 내세워 운영하고 있다.

- 방탈출 게임이 서로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건 정말 신선한 일이다. 연구를 통해 이뤄진 결과물인가

"모든 룸즈에이 매장이 그런 건 아니다. 홍대 매장을 처음 기획하면서 나온 테마가 '키메이커'다. 거기서 뻗어 나가는 세계관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먼저였다. 세계관이 너무 복잡해도 고객마다 어떤 테마를 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상관관계로 만들었다. 다른 테마를 체험하면서 '다른 테마에서 나왔던 세계관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재밌을 것 같았다."

- 방탈출 카페가 붐업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전 방탈출의 한계는 무엇이었나

"방탈출은 콘텐츠 비용이 비싸다. 그런데 일회성 콘텐츠이다 보니 한 번 하고 다음에 또 이용할 순 없다. 비용은 비싼데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지 않나. 한때 우후죽순식으로 전국적으로 방탈출이 생겨났지만, 점점 인기가 사그라졌다.

마니아들 사이에선 후기를 올리는 문화가 있다. 스포일러는 안 되지만, 평가는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곳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다. 퀄리티가 기대한 만큼이 아니면 한두 번 하고 안 가게 되는데, 마니아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은 곳은 다시 '붐업' 하고 있다. 또, 최근 예능을 통해 방탈출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젠 방탈출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못 들어본 사람은 없는 거 같다."

- 예능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는데

"'대탈출'에 나오는 장치를 만들어 드렸다. '필활' 테마에 방송에서 나온 어떤 장치가 조금 바뀌어서 들어가 있다. 방송 보신 분들이나 마니아들은 반가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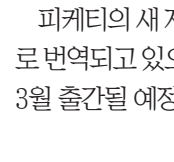
- 1세대 방탈출보다 다양한 장치와 문제들이 만들어진 것 같다

"룸즈에이에는 10년 이상 트릭을 연구하고, 추리 콘텐츠를 진행하던 사람들이 모였다. 무조건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쉬우면서도 재밌고, 어려우면서도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다. 한 테마를 만드는 데 짧게는 2주 길게는 한두 달까지도 소요된다. 플레이어들은 왜 풀어야 하는지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테마에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 좋아하지 않는다." 김소희 기자 ksh@

피케티 '21세기 자본' 후속작 나왔다

1200쪽 분량 '자본과 이데올로기'
佛서 출간, 18개 언어로 번역 중
"富의 국유화 공산주의 반대하지만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정책 제안"

'21세기 자본'으로 세계 경제학계와 정부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토마 피케티(48·사진)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6년 만에 후속작을 선보였다. 피케티 교수의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작은 사진)가 12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출간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6년 전 펴낸 21세기 자본에서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불평등의 기원을 탐구했던 피케티 교수는 인도와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으로 그 시야를 훨씬 넓혔으며 불평등에 대한 급진적인 해법까지 제안했다. 신작은 700페이지의 베스트셀러인 '21세기 자본'을 훨씬 뛰어넘는 1200페이지 이상의 대작이다.

피케티의 새로운 저서는 여러 정치 이데올로기가 중세 이후 불평등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촉진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불평등이 자연적인 원인이나 기술적 변화에 따라 커진 것이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정치적 노력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피케티는 강조했다.

새 저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아주 급진적인 불평등 해법이다. 피케티는 모든 부를 국유화하는 소비에트 스타일의 공산주의에는 반대했다. 대신 만 25세가 된 모든 성인에게 1인당 약 12만 유로(약 1억6000만 원)를 일괄적으로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들이 투자나 자산증식에 쓸 수 있도록 종잣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논의가 활발해진 기본소득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케티의 새 저서는 현재 18개 언어로 번역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내년 3월 출간될 예정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재정건전성 구실로 재정확장 막는 건 국민에 罪"

이준구 교수 "최근 상황 보면 오바마 실패 바랐던 美 공화당 연상"

"재정건전성이란 알량한 구실로 적절한 재정확장 정책의 채택을 가로막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준구〈사진〉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최근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태도를 보면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경제가 전례없는 침체상태에 빠졌을 때 공화당이 보인 태도를 연상하게 된다"며 "위기를 일으킨 장본인들인 공화당 의원들이 재정건전성이니 국가부채한도니 뭐니 하며 딴죽을 걸었다. 공화당 의원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목표는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가 아닐까라는 말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는 신중한 기조가 위험을 더 키울 수 있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플레이션이 경제구조에 자리 잡는 것을 막아야 하며 그렇게 되려면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하며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 0.038%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비춰 볼 때 매우 공감 가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크루그먼 교수의 '과감하고'라는 말은 어느 정도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각적'이란 말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처럼 효과가 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정지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카이스트 나노종합기술원장 이조원 한양대 석좌교수 선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이조원 한양대 나노융합과학과 석좌교수를 제6대 나노종합기술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1952년 충남 출생으로 한양대 금속공학과 학사와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금속과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뒤 과학기술부 21세기프런티어사업단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장과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을 거쳤다.

김범근 기자 nova@

중소기업중앙회 신임 상임감사 장경순 前 조달청 차장 임명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신임 상임감사에 장경순 전 조달청 차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019년 9월 16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3년이다.

장 상임감사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기술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달청에서 원자재비축과장, 국제협력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국제물자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조달청장, 차장 등을 거쳤다.

이재훈 기자 yes@

이강대 고신대복음병원 교수 대한갑상선학회장 취임

고신대복음병원은 이비인후과 이강대 교수가 이달 1일자로 대한갑상선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강대 교수는 대한갑상선학회의 초대 간행이사를 지내면서 대한갑상선학회지 창간호를 발간하였고 부회장 등을 맡았다. 또한 '제1회 아시아·태평양 갑상선외과학회'의 학술대회장과 국내 81명의 저자가 공동집필한 '갑상선두경부외과학' 집필위원장과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장도 역임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비서실장 최문기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황한진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김연진 △미래인재정책과장 정택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승진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김도형 ◇과장급 전보 △지역문화정책과장 장경근 △방송영상광고과장 박기홍

◆**보건복지부** △감사관 배금주 △질병관리본부 생명의과학센터장 김성곤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양종수

◆**관세청** ◇과장급 전보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정호창 △인천세관 감시국장 강성철 △포항세관장 김재홍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경배 △〃 김경남 △연구위원 김충재

부음

'톈안먼 탱크맨' 사진기자 찰리 콜 별세

1989년 중국의 6·4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때 맨몸으로 진압군의 탱크에 맞선 '탱크맨(Tank Man)'의 모습을 카메라 앵글에 담은 사진기자 중 한 명인 찰리 콜이 별세했다. 향년 64세.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인인 찰리 콜은 오랫동안 거주해오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난주 숨을 거뒀다. 찰리 콜은 1989년 톈안먼 광장이 멀리 내려다보이는 베이징호텔의 발코니에서 흰 셔츠에 검은 바지 차림의 시민이 홀로 돌진하는 탱크 앞을 가로막는 사진을 찍었다. '탱크맨' 사진을 찍기 전에는 한국에서 3년간 머무르면서 1987년 6월 항쟁 등 한국의 민주화 운동 시기를 현장에서 기록했다.

印尼 '기술의 아버지' 하비비 前 대통령

인도네시아에서 '기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하루딘 유숩 하비비 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8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하비비는 1998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인도네시아의 3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는 조기총선을 결정하고, 언론을 자유화했으며 수십 개의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도록 정당법을 바꾸고, 수하르토 군사독재시대에 수감된 정치범들을 석방해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술라웨시섬의 엄격한 이슬람교도 가정에서 태어난 하비비는 반둥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독일로 유학해 1960년 아헨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독일의 항공기 제조사에서 재직하다 과학 기술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추구하는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1973년 인도네시아로 돌아왔다.

하비비는 대통령 기술고문 등을 거쳐 1978년부터 20년 동안이나 과학기술부 장관직을 역임하며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정책을 관장했다.

▲**신정숙** 씨 별세, **박강수**(전 배재대 총장·전 라이온스 총재) 씨 부친상, **박상준**(페이스북 미국 본사 부장)·**혜성**·**소영**·**지영**·**성연**(경복대 교수) 씨 부친상, **이재혁**(경동대 교수)·**정형국**(더맨즈콰이어 지휘자)·**김진식**(횡성정형외과 원장)·**심재손**(사업) 씨 장인상 = 1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02-3410-6920

▲**이병희** 씨 별세, **강병욱**(전 진해용원고등학교 교장)·**영옥**·**병일**(삼천리ES 사장)·**병덕** 씨 모친상, **허무열**(전 호계중학교 교장) 씨 장모상, **황홍숙**(전 양덕초등학교 교장)·**이외숙** 씨 시모상 = 14일, 마산 MH연세병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30분, 055-223-1000

▲**권순욱**(전 고려제강 전무·전 KPS 사장) 씨 별세, **서혜란** 씨 남편상, **권지원**(YOU ME 특허법인 변리사)·**명원** 씨 부친상, **정진일**(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신현준**(교보증권 과장) 씨 장인상 = 1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02-3010-2232

▲**이민구**(전 서울신문 국장·전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씨 별세, **허지혜** 씨 남편상, **이지연**·**수지**(플러스휴먼리소스 이사) 씨 부친상, **신해성**(인천금융고 교사)·**김형덕**(SK플래닛 매니저) 씨 장인상 = 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02-2227-7591

허찬국의 세계경제

거시경제 상황 얼마나 탄탄한가

전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지속 가능성이 문제다. 우선, 부진이 장기화하면 재정 지출의 여력이나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두 번째, 민간 소비 증가의 지속 가능성이다. GDP로 알 수 있듯이 전체 소득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가계 소비가 느는 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빚을 늘리든가, 아니면 정부의 한시적 일자리 정책의 효과로 소득이 늘어 가능한 일이다. 두 경우 모두 지속 가능성이 낮다.

지난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총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청와대는 한국의 거시경제가 상당히 탄탄한데 고용만 미흡하다고 지난해 말부터 발표해 왔다. 정부 관점에서 보면 최근 고용 개선은 전반적 경제 상황이 양호한 그림에 화룡점정일 것이다. 과연 우리 경제가 '상당히' 탄탄한지, 고용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를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해 두 번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는 몇 달 전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청와대와 다른 시각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당시 월별 지표가 아닌 분기 자료를 사용한 분석이라 크게 주목받았다. 필자는 좀 더 긴 흐름에서 보기 위해 분기별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주요 지출 항목들이 2년 반 사이에 얼마나 늘었는가를 계산해 분석하였다. 성장하는 경제에서 각 항목의 규모는 시간이 지나면 커지는 것이 보통이다. 비교 단위를 10개 분기로 잡은 것은 마지막 기간인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가 대략 현 정부의 재임 기간이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및 주요 항목의 10분기간 증감률 (단위: %)

비교 시점	소비지출	(민간)	(정부)	설비투자	수출	GDP
2011년 1분기 대비 2013년 2분기	1.42	-0.18	7.04	7.63	15.77	0.39
2012년 1분기 대비 2014년 2분기	1.51	0.36	5.37	1.29	14.62	11.57
2013년 1분기 대비 2015년 2분기	2.14	0.88	6.22	23.98	6.73	11.28
2014년 1분기 대비 2016년 2분기	2.27	1.13	5.88	18.14	6.15	11.06
2015년 1분기 대비 2017년 2분기	2.94	2.24	5.11	32.69	10.37	11.39
2016년 1분기 대비 2018년 2분기	3.17	2.65	4.71	29.25	13.10	11.48
2017년 1분기 대비 2019년 2분기	4.22	2.57	9.02	0.33	4.77	10.32
2019년 2분기 금액(조 원)	293.1	216.5	76.4	40.2	166.7	460.1

※ 출처: 한국은행, 2015년 기준 실질 금액 원자료, 수출은 재화의 수출

먼저 표 마지막 칸의 GDP를 보면 2019년 2분기 실질 GDP 규모는 2017년 1분기에 비해 10.32% 늘었다. 이전 같은 기간의 증가율이 보통 11%를 상회했던 것에 비해 약 1%포인트 낮다. 경제 전체의 생산 또는 소득이 이전에 비해 2017년 이후 상대적으로 더디게 늘었다고 볼 수 있다. 1년 전과도 차이가 커 작년 하반기 이후 경제 상황이 나빠졌음을 보여준다.

개별 항목들을 보면 소비지출을 제외한 투자, 수출 증가세가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율 하락폭이 크다. 설비투자는 원래 변동성이 커 최근 증가율 하락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3년, 2014년에도 설비투자 증가율은 한 자릿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눈에 띄는 점은 수출의 큰 폭 하락이 동반되었다는 것이다. 수출 둔화가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이어서 투자 부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의 노동시장, 정부 규제 등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지출이다. 표 마지막 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경제에서도 민간 소비의 규모가 투자, 수출을 능가하는 등 크게 증가하며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전체적으로 4.22% 늘었는데 이는 민간 소비가 2.57%, 정부소비가 9.02% 각각 증가한 결과다. 2011년 이후 정부 지출이 지속적으로 민간 소비 지출보다 빠르게 늘었지만, 2017년 이후 증가세는 그보다 훨씬 높다. 소비 지출의 증가는 재정 지출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이 문제다. 우선, 부진이 장기화하면 재정 지출의 여력이나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두 번째, 민간 소비 증가의 지속 가능성이다. GDP로 알 수 있듯이 전체 소득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가계 소비가 느는 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빚을 늘리든가, 아니면 정부의 한시적 일자리 정책의 효과로 소득이 늘어 가능한 일이다. 두 경우 모두 지속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경제성장세의 회복 없이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한시적 현상이다.

소비에만 초점을 맞추면 거시경제가 탄탄하다는 시각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거시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으나 정부가 지출을 늘려 완화하는 전형적 재정 지출에 의존한 경기 안정화 모습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경제의 뒷심을 오판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 조 내버로 'FBI 관찰의 기술'

非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생각 읽기

오랫동안 범죄인들을 수사해 온 사람들은 비언어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인간의 속내는 언어보다도 비언어에 더 많은 것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체득해 왔다. 비언어에서 특별한 것을 포착하는 능력이 중요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체득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기술의 일부라도 일반인들이 익힐 수 있다면 비즈니스나 일상 생활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로그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스코틀랜드 수학자 존 네이피어는 "언어가 생각을 감추기 위해 존재한다면, 몸짓은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바로 이 문장에 조 내버로의 'FBI 관찰의 기술'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저자 존 내버로는 23세에 미연방수사국에 스카우트되어 25년간 지능범죄와 테러리즘 분야의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다. 고도로 훈련된 스파이와 범죄자의 포커페이스 이면을 몸짓으로 읽어온 사람이다. 그는 조직에서 '인간 거짓말탐지기'라는 명성을 얻었다.

이 책은 상대의 몸짓이 지닌 의미를 읽어내는 길잡이이자 현장 매뉴얼이다. 신체 부위별로 나누어 400개 이상의 가장 중요한 보디 랭귀지를 소개한다. 저자는 보디 랭귀지를 읽는 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나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친구나 연인,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표현 또는 신호를 습득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행동하지 등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 책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머리, 이마, 눈썹, 눈 등 모두 19개 신체 부위에서 자주 발견되는 제스처들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머리카락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누군가 더럽거나 헝클어지거나 뽑히거나 단정치 못한 머리카락 상태라면, 이는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팔짱 끼기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해석을 더한다. 많은 사람들이 팔짱 끼는 행동을 상대방을 멀리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편안하기 때문에 팔짱을 끼는 사람도 있고, 가슴을 가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말하면서 적당하게 몸짓을 사용하는 것은 단어를 기억해 낼 때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누구든 말할 때 적당한 몸짓을 섞는 일은 효과적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를 꼬고 있던 사람들도 타인이 타자마자 순간적으로 다리를 푼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교차했던 다리를 푸는 것이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우리의 발은 그에게로 이끌린다. 상대에 대해 연애감정이 있다면 틀림없이 발을 슬쩍 닿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음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신경학적으로 발에 무언가가 닿으면 그 자극이 뇌의 마루엽에 있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위에 도달하는데, 이곳은 생식기를 통한 자극이 도달하는 부위와 매우 가깝다."

누군가와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한쪽 발을 돌려 문쪽으로 향하게 한다면 이는 "그만 가봐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표시다. 이를 흔히 '의도단서'라 부르는데,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짜증이 난다. 대화에 열중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삶은 항상 뭔가를 읽어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의도와 저의를 읽으낼 수 있다면 큰 이득을 볼 것이다. 직원이나 고객의 사소한 언행에서 뭔가를 읽어낼 수 있다면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작은 지혜와 경험 지식들을 잘 정리한 책이다. 공병호연구소장

기자수첩

주주는 '이방인'이 아니다

노우리 자본시장1부/we1228@

"주가를 딱히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서요."

최근 취재를 위해 접촉한 한 상장사 임원의 말이다. 불과 얼마 전 공시한 내용에 대해 묻자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일명 '주담'이라 불리는 IR담당자를 찾자 주주들을 상대할 일이 없어 담당자가 없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는 일장연설로 대화를 끝맺었다.

기시감이 들었다. 비슷한 말을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회사 대표는 상장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주가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주가 추이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듯했지만, 시장에 기업을 선보이는 과정에서 할 말로는 적합하지 않아 보였다.

'주가에 신경 쓰지 않는 상장사'라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에 가깝다. 외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을 시장에 선보인다는 건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다.

상장을 통해 기업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뛰어들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 이 과정에서 큰 이득을 보는 건 회사의 지분을 많이 보유한 대표이사와 임원들이다.

기업은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의 궁금증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주가가 많이 내려갈 경우엔 주가부양책도 고민해야 한다. 주가 추이가 실질적 사업 내용과는 무관하게 날뛰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그게 주주들과의 소통을 등한시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순 없다.

주주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기업 성장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안익태(安益泰) 명언

"나는 반드시 런던 교향악단을 지휘하겠다."

소원을 현재형으로 언어화해 선언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자성예언(自成豫言)을 이렇게 하며 그는 지휘자의 꿈을 키워나갔다. 독일로 건너간 그는 미국에서 적어 두었던 가사에 곡을 붙여 애국가를 작곡하고, 1936년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한 베를린 올림픽 때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애국가를 불렀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906~1965.

☆ 고사성어 / 발분망식(發憤忘食)

분발하여 무엇을 하는데 끼니조차 잊는다는 뜻이다. 출전은 논어(論語). 초(楚)나라 섭현(葉縣)의 장관 심제량(沈諸梁)이 자로(子路)에게 "그대의 스승 공자(孔子)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라고 물었으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일을 나중에 들은 공자가 자로에게 말했다. "너는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됨은 학문에 발분하면 식사를 잊고, 도를 즐겨 근심을 잊으며, 늙음이 닥쳐오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發憤忘食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

☆ 시사상식 / 라운징족(lounging族)

바쁜 일상을 벗어나 카페, 공원 같은 데서 홀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며 위안을 얻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편안한 휴식과 공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한다.

☆ 유머 / 상사가 이해한 전문성

평소 전문성을 강조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회식 후 노래방에 갔다. 부장이 "신입 중에 전자나 컴퓨터과 나온 사람 있나?"라고 물었다. 전자 전공 신입이 손을 들자 컴퓨터 관련학과 동기도 재빨리 손을 들었다.

그러자 부장이 둘 다 나오라며 한 말. "자네들 여기 서 있다가 기계에 노래번호 좀 찍게."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논설실장 추창근 | 편집국장 김덕헌

논설실 (02)799-2669
자본시장1부 (02)799-2647
산업부 (02)799-2644
정치경제부 (02)799-2663
자본시장2부 (02)799-2648
중기IT부 (02)799-2646
사회경제부 (02)799-2612
금융부 (02)799-2665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국제경제부 (02)799-6741
부동산부 (02)799-2637
뉴스랩부 (02)799-2664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분양가 상한제, 내 이럴 줄 알았다

데스크칼럼

조 철 현
부국장 겸 부동산부장

내 이럴 줄 알았다.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너무 앞서간 얘기가 아니냐고 핀잔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결코 빈말이 아니다. 그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무슨 소리냐고 의아해할 사람도 있겠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주택시장 얘기다. 분양가 상한제가 닻을 올리기 전인데도 시장 곳곳에선 파열음이 일고 있다.

요즘 서울 강남권 새 아파트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없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다.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2017~2018년 집값 급등기에 찍었던 고점을 훌쩍 넘어선 곳도 수두룩하다. 분양가 상한제로 새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축 단지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강남 요지 신축 아파트 매매값은 3.3㎡(1평)당 1억 원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59㎡(24평)가 최근 24억3000만 원에 팔렸다는 얘기까지 전해진다. "강남 3.3㎡당 1억 원을 막겠다(김현미 장관)"면서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이 되레 강남 집값 상승 가도에 '꽃길'을 깔아준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취지는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 주변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분양가가 내리면 인근 집값의 거품이 꺼져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시장은 국토부의 선한 의도와는 딴판으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집값이 미쳐 날뛸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청약시장은 또 어떤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광풍이 불고 있다. 분양 단지 견본주택은 주말마다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청약경쟁률은 수십 대 1, 수백 대 1을 기록하기 일쑤다. 앞으로 신규 분양 물량이 급감하고 청약 당첨 커트라인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이 앞다퉈 청약에 뛰어든 결과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낮은 가격의 분양 물량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데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높은 분양가를 잡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청약 과열을 부추기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전세시장도 폭풍전야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로또 단지' 분양을 기다리며 전세로 눌러앉는 청약 대기자가 늘면서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전셋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강남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시차를 두고 마포·성동구 등 강북도 상승 대열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 축소'라는 무서운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신규 택지 공급이 어려운 서울에서 유일한 주택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 단지 주민들이 분양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새 아파트 수요는 넘치는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막히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비껴 난 재건축 단지나 신축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게 뻔하다.

청약 열기는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칼집 속에 있는 상한제가 밖으로 나올 경우 수억 원의 웃돈을 기대한 무주택자들이 대거 분양시장으로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당첨만 되면 대박이라는데 팔짱 끼고 구경만 하거나 모른 척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분양가를 끌어내려서라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주변 집값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 상황과 경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목표를 이루기는커녕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경기까지 더 쪼그라들면 1% 후반대 경제성장률도 지켜내기 어려울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섣부른 분양가 규제를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데도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럴 줄 알았다. 김현미 장관은 시장의 후폭풍쯤은 가볍게 무시하고 마이웨이식 정책을 밀고 나갈 줄 내 진즉에 알고 있었다. '강남 집값과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에 정치가 덧씌워지는 순간, 집값도 못 잡고 표심도 잃는다. 시장을 억누르면 시장의 보복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몫이다.

choch21@

사설

자영업 대출·연체 급증, 부실 차단 급하다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연체율 또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개인사업자)와 가계대출 잔액이 1893조 원으로 1분기보다 28조 원(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12조6000억 원(3.0%) 증가한 425조9000억 원이었다. 가계대출이 1467조1000억 원으로 15조4000억 원(1.0%) 불었는데, 여기에는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도 포함된다. 개인사업자 가계대출만 228조4000억 원으로 5조2000억 원(2.3%)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654조3000억 원으로, 일반 가계대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과 경쟁 심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 연명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자영업 대출은 숙박·음식점, 도소매 등 영세 업자들이 밀집한 업종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한은 자료에서 2분기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대출은 1년 전보다 12% 증가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자영업 대출은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 대출이 많다. 운전자금 대출이 시설자금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경기악화로 이들의 연체가 늘면서 대출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5월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40%로, 작년 말 0.32%보다 크게 올랐다. 가계대출(0.32%)이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2%)을 많이 웃돈다. 연체율은 갈수록 상승하는 추세다.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자영업 대출에서 2금융권의 비중 또한 높아져 금융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자영업은 건당 대출액이 많은 반면, 주택담보 위주인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건전성이 크게 떨어진다. 저신용·저소득 차주(借主)가 대다수이고, 장기불황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계층의 생계형 자영업이 많다. 이들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이 어려운데다, 경기가 계속 나빠지면서 대출을 또 늘린다. 결국 다중채무의 늪에 빠져들거나 상환불능 상태로 추락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서 경기와 최저임금 영향이 큰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작년 말 각각 294.4%, 255.3%로 2017년보다 55.0%포인트(p), 33.2%p 높아졌다.

자영업 대출과 상환부담이 커질수록 연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금융시스템에도 위협적이고, 우리 경제의 취약한 고리 가운데 하나다. 대출규모와 연체율 증가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곽도흔의 共有하기

질문받지 않는 장관

정치경제부 차장

가수 김건모는 1993년 노래 한 곡으로 최고 인기가수로 등극했다. 그 노래 제목은 바로 '핑계'다. 국내에서는 생소했던 레게 음악에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흥얼거렸다. 핑계는 이런 가사로 시작한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니가 지금 나라면은 웃을 수 있니."

갑자기 세월 지난 노래 얘기를 꺼낸 이유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길 싫어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때문이다. 김현미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둔 10일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담화문만 읽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이란 제주도 남쪽에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항공기들이 다니는 비공식적인 하늘길을 말한다. 중~일 노선을 위해 한·중 수교 전 불가피하게 만들어져 세 나라가 모두 관제권을 갖고, 고도 등의 규제도 있다. 그러다 보니 안전에 취약해 우리 정부와 중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이 항공회랑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어 일본 정부에 적극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날 브리핑의 핵심이었다.

김 장관이 담화문을 읽고 황급히 자리를 뜨자 국토부 출입기자들은 "장관님, 장관님" 하면서 애타게 불렀지만, 김 장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장관이 자리를 비운 뒤 항공정책실장이 질의응답을 받겠다며 브리핑을 계속했지만, 기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대변인 명의의 해명 문자가 뿌려졌다. 자칫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다가 잘못된 발언이 나오고 이게 기사화될 경우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8월 8일 경기도 화성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열린 BMW 화재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물론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을 수는 있다. 다음 일정으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날 김 장관은 사전에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항상 '국민의 대표로 하는 질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마 김 장관도 의원일 때는 이 점을 강조하며 질문했을 것이다. 기자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브리핑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꼭 알려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 브리핑에 참석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이를 질문을 통해 해소해 국민에게 알린다.

김 장관이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자들은 김 장관이 질문을 받지 않는 것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 장관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그런 장관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soqood@

알쏭語 달쏭思

좌고우면(左顧右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후보자 시절부터 제기된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하자 이를 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좌고우면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좌고우면은 '左顧右眄'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왼쪽 좌', '돌아볼 고', '오른쪽 우', '바라볼 면'이다. 글자대로 풀이하자면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도 바라본다"는 뜻이다. 즉 왼쪽의 눈치도 살펴야 하고 오른쪽의 눈치도 살펴야 한다는 뜻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사전은 좌고우면을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이라는 풀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는 것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과감하게 일을 처리하는 타입이다'는 뜻이다.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라는 긍정적 의미의 찬사이다.

그런데 좌고우면을 지나치게 터부(Taboo)시(視)하는 사람은 자칫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독선에 빠질 위험도 있다. '眄'은 사물의 형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쪽 눈을 지그시 감고서 소상하게 보는 행위를 표현한 글자인데, 한쪽 눈을 지그시 감는 행위를 잘못하면 자칫 봐야 할 한쪽을 아예 못 보는 '애꾸눈' 상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잃고 독선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좌고우면을 안 하는 것은 당당한 소신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누구라도 아예 좌고우면을 못한다면 그것은 공간지각능력 부족이므로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좌고우면을 지나치게 하지 않다 보면 더러 좌고우면을 아예 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되기도 한다. 윤흥길의 소설 '완장'에 나오는 저수지지기 임종술이 좌고우면을 못한 바보의 대표적 예이다. '완장'을 '권력'으로 여긴 임종술은 완장에 눈이 멀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토록 못난 행패를 부린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SAMSUNG

우리의 시작을
가장 예쁘게.

처음 사는 신혼집
처음 사는 신혼가전

우리의 시작은
가장 예뻐야 하니까

#신혼테리어의_완성
삼성 신혼가전

비스포크 웨딩샵에서 삼성 신혼가전을 만나보세요
www.samsung.com

세련된 풀 메탈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 **무풍큐브**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디자인 TV **The Serif**

사용하지 않는 순간에도 공간을 빛내는 **에어드레서**

한 점의 가구처럼 공간과 잘 어울리는 **무풍에어컨**

원하는 컬러&소재로 나만의 맞춤 디자인 **BESPOKE**